

문대통령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 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 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든든한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

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심심 발휘되고 있다”며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 부위정경의 뜻을 받들며

국난이 전쟁과 유사할 만큼 위급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은 물론 자본주의 쫓아라 할 수 있는 돈의 편중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나타내며 삶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언론이 이식되고하여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진대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연일 대권후보들에 대한 열띤 리그전만이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운이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다고 달라질 수 있으며 아비규환의 국민들은 절로 풍요로워진다고 누가 장담할까요. 현 정부 재임 4년이 넘도록 함구하고 있다가 예비후보등록 이후에야 그동안의 정책을 성토하는 건 국민의 과정에 공명이 아니던가요.

진실은 질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크기나 함량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동안 필자가 짚어온 현 정권의 문제점은 현재 후보들이 지적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점들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목인했던 후보가 다시 집권하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을

으로 대한민국 서울 25개 구청에 본보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살수 없듯 중앙언론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중소 언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창립된 서울시 기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작지만 예리한 칼날을 세워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패에 메스를 대고자 합니다. 다소 출혈이 있겠지만 당연한 과정으로 감수하며 서울부터 전국의 곳곳에 대대적인 투쟁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꾸려가도록 언론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과 어용 감사 권에 현실을 맡겨둘 수 없기에 관객에서 배우로 무장하여 무대에 나설 것입니다. 싸릿대 열 개가 몽둥이 하나보다 낫다는 말을 새겨 어떠한 금전과 권력에도 타협 없는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건 국민의 관심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인터뷰, 229개의 중소 언론사 규합, 25개 서울시 구청의 기자단의 활성화를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자 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달라지는 모든 걸 기록하고 보도하여 장도에 반듯한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위기를 맞이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국정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빛더미의 나라,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창궐, 갈수록 늘어나는 빈부격차와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안일함을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의 기대로 부른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온갖 미사여구로 채워진 복지예산보다 땀 흘려 일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패거리 문화에 벼슬을 나눠먹느라 적시적으로 인재가 제자리를 잃고 작고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달라질 때가 왔습니다. 지역 감정과 지연연연현으로 이어진 한국병이 이제는 완쾌되어 지도자의 자질을 중심으로 선택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프레임에 완성되어가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정당정치에 발목 잡지 않는 인재기용의 소신과 풍부한 인격의 완성으로 덕의 정치로 과감히 펼칠 수 있는 현 대권 정조대왕이 2023년부터 대한민국을 지구의 중추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함 한 표는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다가 송고한 그날이 오면 독립열사가 피 묻은 태극기 꺼내듯 조심스레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자 책임이며 망국의 정당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박영/김근식

7월 수출 554억 달러...65년 무역 역사상 최고치

9개월 연속 증가...1~7월 누계기준도 역대 1위 “코로나 극복 과정서 수출 포트폴리오 단단해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월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수출은 또한 9개월 연속 증가했고,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한 기록이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도 3587억 달러로 역대 1위다.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554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6%가 늘었다. 이는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가장 많은 월 수출액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7년 9월 551억 2000만 달러보다 3억 2000만 달러 많다.

수입은 38.2% 증가한 536억 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일평균 수출은 32.2% 늘어난 22억 6000만 달러였고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6월에 이어 2개월 이상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8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최근 내수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7월 수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4개월 연속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4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는 10년 만이고, 9개월 연속 증가는 2018년 3월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연속 플러스 기록이다.

4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 2분기보다는 7월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이는 기저효과 차이 때문이며 기저효과를 배제하면 7월도 증가율 측면에서 2분기 수준의 수출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반기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며 역대 1위로 하반기 출발했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나 역대 월 수출액 톱5에 진입했다. 역대 7월과의 비교에서는 그간 1위였던 2018년 7월의 실적(518억 달러)을 30억 달러 이상의 큰 격차로 넘어서며 1위를 달성했다.

상반기 수출 역대 1위 이후, 7월 수출까지 역대 1위를 차지하면서 7월 누적으로 수출액 역대 1위, 수출 증가율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

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하며, 1~7월 수출액은 3587억달러로, 7월 누계 기준으로도 역대 1위였다. 7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1~7월) 26.6% 증가하며 2010년 1~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 호조세는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고른 역대급 실적이 뒷받침했다. 10년 6개월 만에 2개월 연속으로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늘었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14개 이상의 품목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월 수출액이 모두 500억 달러를 초과한 동시에 해당 월의 역대 수출액 1위를 모두 차지해 전 품목의 균형 실장이 최근 수출 상승세의 원동력을 보여줬다.

또 15대 품목이 모두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주요 주력품목과 신성장 품목들이 나란히 7월 역대 수출액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 품목들이 기저효과와 관계없이 선전했다.

반도체는 신규 CPU 출시,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수출 호조세를 이끌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알려진 2018년 7월(104억 달러)을 앞지르며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 기록했다.

석유화학은 포장재·방역용품 등의 수요 급증으로 7월은 역대 2위의 수출액을 기록, 최근 5개월의 월수출액이 역대 1~5위를 차지했고, 일본에게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건설·공작기계 등의 수출품이 선전하며 역대 3위의 7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되고 친환경차·SUV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2위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최근 7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컴퓨터 수출액은 재택근무 등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역대 최고의 7월 실적을 달성했으며, 다른 IT 품목들도 오랜 기간 지속 성장하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로의 사업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전년 대비 38.0% 수출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물·화학제품 등 유망 신산업들은 모두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 실적을 경신한 동시에 1~7월 누계 수출액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4개월 연속으로 9대 주요 지



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미국·EU·아세안 등 주력시장과 일본·중남미·인도·중동·CIS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전지역 플러스였고, 높은 수출 증가율과 함께 수출액 측면에서도 4대 시장(중·미·EU·아세안) 수출은 모두 역대 7월 중 1~2위를 차지하며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신신남방(아세안+인도)과 대미국 수출은 과거 7월과의 비교를 넘어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올해 하반기 수출도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대외 리스크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치 글로벌 교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IMF를 비롯해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을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WTO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글로벌 무역 교역액은 전년동기 대비 27.4% 증가하며(15조 8344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단가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석유제품 등의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선진 등으로 우리 수출 단가는 9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 중이고 이러한 수출 단가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3분기 이후 우리 수출의 지속 상승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 또한 잇달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며 모두 연간 수출 6000억 달러 및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예상했고 최근 수출입은행은 3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해 수출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등급인 AA- 등급(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

데믹 관리, 수출·투자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의 수출 상승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수출 기업이 체감하는 수출경기 지수도 긍정적이다.

대분기 무역협회는 발표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수출 기업들은 3분기 수출경기는 2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13.5로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지수가 110을 넘어서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경기 전망은 긍정적이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주요국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3분기 수출경기는 직전분기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불과 한 달 전 우리 수출 사상 최고의 상반기 수출액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수출은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7월의 수출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며 수출 포트폴리오가 더욱 단단해진 것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운임비용 상승, 부품수급 차질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품목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견조해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수출입물류 애로, 부품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험요인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과 무역 1조 달러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장흥 송백정 배롱나무군락지 “백일홍 만개”



최만식기자

경남도의회 박정열 위원장, 경남노래연습장협회 방역물품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상황으로 노래연습장 경영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방안 협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국민의 힘, 사천1)은 2일 오후, 경남도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진주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사천시 서효숙 문화체육과장과 함께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연합회 사무실에서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이승민 회장 등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노래연습장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이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 대대적인 휴폐업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의 경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방역물품을 노래연습장에 구비, 방역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노출하게 함으로 고객들에게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자동무선분무소독기 등의 방역물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열 위원장은 “노래연습장은 가족문화, 여가문화 확산 등 정서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설이다”라고 공감하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물품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협회차원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광진구 원룸촌 방문, 청년 1인 가구 실태 점검'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방문, 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대권 주자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강북을)와 7월 31일 오전 광진구 원룸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서승복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관계자들도 동행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함께 살폈다.

최선 의원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시청년센터 광진구 오방에서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측과 광진구의 청년 1인 가구 주거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장과 광진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취약한 청



년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주거권 보장과 삶의 질 상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간담회 이후, 최선 의원은 광진구 원룸 밀집지역 일대를 방문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았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

율이 4번째로 높은 자치구로(39.2%), 화양동의 경우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79.11%를 차지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사무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이다.

현장 방문 후, 최선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복지, 인권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각도 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최선 의원은 지난주 일요일 박용진 대선 후보와 함께 중립동 쪽 방촌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하절기 폭염 및 우천 대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최광수기자

군위군의회 심철 의장, 리브 투게더 챌린지 동참



군위군의회 심철 의장은 지난 2일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함께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인종 차별 반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캠페인 참가자를 지명

하면 된다.

군위군의회 심철 의장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 선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여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군위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군위군 의장은 다음 챌린지 동참자로 의성군의회 배광우 의장을 지명했다.

김세기기자

울산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록)는 30일 오후 1시 30분, 특별위원회 위원 및 안상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울산의 인구유출 방지 대책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지원 방안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해

법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구성된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구성 이후 첫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저출산·인구감소대책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날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성록 의원이, 부위원장은 천기욱 의원이 선임되었으

며 2022년 4월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성록 위원장은 “울산이 직면한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울산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호 소통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지금의 위태로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울산의 성장 발전 엔진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9개월 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소통간담회, 정책제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부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관악구, 저축액을 두 배로~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가자 100명 모집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저축액만큼의 구 근로장려금과 은행 이자 추가 지급

관악구가 8월 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1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통장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가장 먼저 시행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천 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는 식이다.

구는 지난해 6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증액, 선발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식을 작성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하고,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구 참여자를 선발한다.

구는 오는 12월 1일 홈페이지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으뜸관악 청년통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관악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2021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저축액 100% 추가지급

성실이 일하는 관악구 근로 청년들을 위한 100% 예탁의 청년통장에 가입하세요!

모집인원	100명
대상	관악구 거주 만 18세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저축기간	10만원 15만원 / 2·3년 중 선택
신청기간	2021.8.2(월) ~ 8.20(금) 18:00까지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지원 필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청년(2)팀 (2016011275@ga.go.kr)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영등포구, 폭염 대비 경로당 125개소 무더위쉼터 운영재개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125개소 운영 재개...폭염 피해 최소화

영등포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 125개소를 개방하고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1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 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인원과 시간에 기준을 두고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운영을 다시 중단했으나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경로당의 재개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28일부터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총 125개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르신을 맞고 있다.

구는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로 제한하고 백신 2차 접종 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이용 정원의 50% 이내의 인원만 입장을 허용한다.

또한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를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문기록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문인원 관리와 상시 소독 및 환기, 방역물품의 수급 관리와 배부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구는 지난 6월 23일 각 경로당별 감염관리 책임자 167명을 대상으로 책임자의 역할과 확진자(감염의심자)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등의 내용을 교육한 바 있다.

이밖에도,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를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해, 동 주민센터, 대한노인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함께 각 경로당의 운영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과 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잠시 중단했지만 어르신들께 시원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 개선에 철저를 기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도봉구, 2021 도봉구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 개최

도봉구와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도봉을 만들고자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를 개최한다.

이번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도봉을 주제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창작물을 공모한다. 참가자는 도봉구민, 도봉구 소재 학교,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학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유치부/초등부의 경우 글(동시 등), 그림(포스터, 그림일기 등), 중고등부/일반부의 경우 포스터, 캘리그라피, 시, 사진이다. 작품의 규격 등 자세한 사항들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오는 10월 26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5일에 발표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1월 예정이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상은 유치부·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성인)로 구분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25명에게 도봉구청장 상장이 주어진다.

응모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마들로 664-23)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단, 출품된 작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시회,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는 등 부정 응모 사실이 확인된 작품은 무효처리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의 명칭인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에서 '어깨동무'란 어울림, 깨달음, 동일함, 무한함을 함의한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사회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어깨동무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 걸어가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그 뜻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2021 도봉구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

[내려와서, 머신, 마음, 함께, 웃어라]

접수기간: 2021.7.19(월) ~ 10.26(월)

- 1. 공모대상: 관악구 거주 만 18세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2. 공모분야: 글(동시 등), 그림(포스터, 그림일기 등), 사진, 시, 캘리그라피
- 3. 공모기간: 2021.8.2(월) ~ 8.20(금) 18:00까지
- 4. 공모방법: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5. 공모대상: 관악구 거주 만 18세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6. 공모분야: 글(동시 등), 그림(포스터, 그림일기 등), 사진, 시, 캘리그라피
- 7. 공모기간: 2021.8.2(월) ~ 8.20(금) 18:00까지
- 8. 공모방법: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서초구, 소규모음식점 위해 방역소독 지원 팔걸이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 소규모 일반음식점 1800개소에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서 면적 100㎡이하의 영업 중인 약 1800개의 일반음식점이며, 이들 업소는 500ml 용량의 분부형 살균소독제 8개를 약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에 따라 소규모 업소 영업주에게 방역 소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구는 살균소독제를 지원하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방문자 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아니라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설치비용 지원, 비누, 손소독제, 덴탈마스크·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연말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영업자 및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무더위 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21. 7. 28. (수) ~
- 운영시간: 평일 13시 ~ 17시
- 운영대상: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1. 예방접종 증명서(백신접종 완료카드 등)를 제시해 주세요
2. 출입 시 반드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출입자 명부 기록을 해주세요
3.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4. 식사 및 음식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영등포구

마포구, 현장소통플랫폼 '무엇이든 제안창구' 운영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직원 조례에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옛말을 전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관심'과 '배려' 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포구청, 7개 동 주민센터,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무엇이든 제안창구'를 설치하였

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총 18곳에 설치된 '무엇이든 제안창구'는 온라인 제안 창구 이용이 어려운 연령과 세대에게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받고자 설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 창구는 별도 공간과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16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무엇이든 상담창구'와 결합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업무 소관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작년 한해 996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간단한 민원 안내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담 창구 기능과 제안 제도 기능이 합쳐져,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마포구는 2018년부터 온라인 등의 제안 창구를 통해 1600여건의 의견을 접수 하였으며, 이중 134건의 구민 제안을 규정 사업으로 채택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겨울철 버스정류장에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가림막 쉼터를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9년 버스정류장 32곳을 대상으로 '온기나무'를 설치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 어르신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손수레를 지원하자는 한 대학생의 제안을 검토하여, 재활용품 수집인 50명에게 '경량 안전 손수레'를 지원하게 되었다.

제안서 제출은 '무엇이든 제안창구'에 마련된 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창구 옆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거나, 마포구청 누리집(소통과 참여 - 제안마당 - 정책소통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라며, "마포구도 제안 받은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순기자



인천시, 인천아빠육아천사단 BI 확정

남성육아 활성화로 부부공동 육아문화 조성 속도 낸다

인천광역시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을 확정하면서 남성육아지원 및 부부공동육아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BI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아빠육아천사단 BI 공모전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총 25개 응모작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와 인천아빠육아천사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상징하는 BI를 확정했다.

BI는 온라인커뮤니티, 멘토링 및 부모교육, 각종 활동 영상 및 책자, 홍보물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육아공동체인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인천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중 하나로써 남성들의 육아커뮤니티 형성, 부모교육,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를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협치형 사업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에 부부공동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BI는 단원들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남성육아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종로구,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폴 구축사업' 본격화



종로구가 보행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폴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폴'이란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시설물에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하여 주민 안전·복지·편의를 개선시키는 스마트 도시의 핵심 지주 인프라를 말한다. 이번엔 신설되는 스마트폴의 표준모델은 '가로등 스마트폴'이다. 기존 도시에 난립해 있던 CCTV주, 교통표지판 등의 도시시설물을 하나의 스마트폴로 통합시킨 LED가로등 기반 모델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이로써 종로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비우기 사업을 병행, 도시미관 향상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예측해 예비 관로를 함께 매설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한편 대상지 중 하나인 '자하문로'는 교통량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각종 교통시설물을 스마트폴에 통합시키고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과속방지 계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한다.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성균관로'에는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벤치, 도시안내 QR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노력한다. '세종대로23길'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이차선 도로가 사라지고 보행자 중심 도로로 탈바꿈되는 지역이다. 스마트조명과 고보조명을 활용함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가로등 밝기를 하향했다가 보행자 감지 시 정상화하는 디밍센서를 도입한다. 주변에 낙원상가, 익선동 한옥거리, 야간 포장마차거리 등이 자리한 '돈화문로 11길'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스마트폴에 지능형 CCTV를 결합시킨다. '북촌로 4.5길'은 경복궁, 창덕궁, 한옥마을 등 여러 관광명소가 위치하여 주민 정주권 보호가 시급한 장소이다. 스마트폴에 유동인구 측정 센서, S-DoT센서 등을 설치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민 정주권과 관광산업의 공존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

이제 보행사업과 스마트폴 사업을 연계해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05억+α의 예산을 집중 투입, 보행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40여개의 스마트폴을 설치함으로써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예정이다. 보행사업과 스마트폴 사업 연계로 구는 예산절감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 선로 구축이 필수적이거나 선로 굴착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보도공사 시 전기·통신 관로를 미리 매설하는 방법으로 굴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중복굴착비용만 약 14억으로 추정되며, 아진 예산으로 각 특화거리에 맞는 ICT 기술을 추가해 맞춤형 스마트폴을 구축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청계천변에 스마트폴 3개소를 시범 설치했을 때에도 보도공사 시 가로등이나 스마트폴 수요를 미리

김영중 구정장은 "올해 5월 스마트폴 확대구축사업 자치구로 선정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종로구는 도시시설물을 비우고 줄이는 비우기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를 지녔다. 여기에 첨단 ICT기술까지 접목시킨 스마트폴 구축까지 더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사람중심 도로환경' 조성 나선다.

2021~2025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 '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되며, 인천시는 2015년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이어 금회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를 위해 공간적 형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걸어야 하는 길', '걷고 싶은 길'로 구분하고, 안전·연계·쾌적·편리·공존성이라는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운영됐던 도로를 사람 중심의 도로로 조성해, 보행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개선이 필요한 보행자길 총 55개(520억 원) 구간, 보행환경개선지구 31개(493억 원) 구간을 선정해, 2021년~2025년까지 연차별로 소요재원 총 1,0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차(2016~2020) 계획에서 보행자길 15개, 보행환경개선지구 9개를 지정·추

진한 것에 비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원도심의 통학로와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접 도로에서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기법을 적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보행공간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도로폭원별 도로 표지훈단을 제시해 최소 보도 폭을 2.5m 이상으로 확보하게 하여 기존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 예규, 유효폭 2.0m 이상) 보다 강화한 것으로 했다. 특히 넓은 범위의 종합적 보행환경 개선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선 개념의 보행자길(전차 15개→금회 55개) 정비 뿐 아니라 면 개념의 정비의 미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전차 9개→금회 31개)를 확대 선정함으로써,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통행량의 증가를 유도하고, 원도심 정주권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지구 2개소(도화역 북측구역, 부평시장 일원)를 선정·제안해, 해당 구청과 함께 국비(사업비 50% 지원) 확보를 위한 사



전계획도 수립했다.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 정책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사람중심 도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인천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증가(2016년 대비 0.53%)하고, 체육·공원·문화집회·유통시설 등 보행유발 시설의 증가로 통행량이 증가(목적통행량 1.01%, 수단통행량 0.54%)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를 확대(전차 기준: 길 15개소→55개소, 지구 9개→31개소) 선정해 보행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유효폭 기준을 강화해 사람의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안전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2025년까지 연차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재원조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중남/기자

마포구,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365일 책 빌려요' 합정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이제는 출퇴근길에 편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겠네요" 합정동 주민 김소희(가명)씨는 합정역 스마트도서관 개관일 손꼽아 기다리다며 수줍게 웃었다. 마포구는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 6·7번 출구 방향에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오는 10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주민이 도서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기기 내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휴관일이나 야간 시간에도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

는 점이 주목되며 최근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번엔 정식 개관을 앞 둔 합정역 스마트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제1호 스마트도서관으로, 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 주민 접근성이 좋은 점을 고려해 합정역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 8월 10일 정식 개관에 앞서 2일부터 9일까지 임시 운영기간을 거친 후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소독기도 함께 비치해 위생적인 독서 환경에도 신경 썼다. 마포구립도서관 정희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고, 365일 연중무휴로 지하철 운영시간(05:30~24:00)동안 이용 가능하다.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현장에서 '서울시민카드'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원증을 발급해 대출할 수 있다. 1인당 2권, 대출 당일을 포함하여

15일간 대출 가능하며 마포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7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단, 마포중앙도서관 대출권수 5권을 초과하거나 회원상태가 대출 정지인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고,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 마포구립도서관에서 이용률이 높은 도서, 독서 유관기관 추천도서, 신간도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과수목도서 등을 포함해 약 500여권의 엄선된 도서가 주민을 기다리고 있으며, 책은 인기 순위나 분야별 혹은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구는 추후 이용실적 등을 분석해 신간 및 인기도서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면 출퇴근길, 등하굣길 등 주민의 생활권안에서 365일 원하는 책을 손쉽게 빌려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웅진군, 수산종자(꽃게, 조피블락) 매입·방류

어업자원 회복·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웅진군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회복·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꽃게와 조피블락 종자를 관내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연평, 대청, 덕적·자월해역에 어린꽃게 약 215만마리(연평 43, 대청 80, 덕적·자월 92)를 방류하였으며, 30일에는 덕적·자월해역에 조피블락(우럭) 약 81만마리를 방류하였다. 이번엔 방류한 종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정밀검사 결과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피블락은 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공동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자 확인 분석이 완료된 건강한 수산종자이다. 또한, 해마다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어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대청 어선어업인을 위하여 백령·대청 연안



해역 일원에 조피블락 종자 약 79만마리를 방류해 8월 6일 추가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웅진군 관계자는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자원회복이 필요한 꽃게, 어업인들의 수요와 경제성이 높은 조피블락을 방류하게 되었다"라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어업인 스스로 어린물고기 납획과 과다 어구 사용을 방지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동대문구,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동대문구는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해외 취·창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2개의 특성화고등학교(휘경공고, 해성국제컨벤션고)에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운영비 3,660만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동대문구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해외 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과 공동수업을 하고 현지 기업 견학 등을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현장 실습이 어려워 해외 원격(화상) 직무교육·수업 공유, 국내 주재 외국 기업 대상 현장실습 및 국외 소재 기업 대상 온라인 현장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덕일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직무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으뜸 교육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희망기업 모집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헬스 플래너'와 함께하는 건강하소'에 참여할 사업장을 27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된 생활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직장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2021 건강하소'를 이달 중 개설한다. 신청 대상은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참가희망 업체는 이달 27일까지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의 직원들은 카카오톡 '건강하소' 채널에서 6주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운동·영양 전문가와 1:1 채팅으로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목표 걸음 걷기 등 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심한석 보건행정과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온택트리더'답게 건강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이밖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인 가구 영양사업'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충남도, 수도권 인접지·휴가지 '방역 위반' 집중단속

도, 시군·경찰과 8월 특별방역점검... 40개 업종 2만 2403개소 대상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기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이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 기간 연장 운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 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 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원정 유흥'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은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인 만큼, 자율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위



반 행위에 단속도 강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도내 1만 53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0개소

를 찾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원호기자

안산시, 안산시민 77% "대부도 구간단속 카메라 부적절"

안산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도 시화방조제에 설치한 구간단속 카메라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과속과 사고를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산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달 13~26일 대부도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적절성을 묻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는 안산시민 응답자 1천12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23%(260명)에 그쳤다.

나머지 77%(869명)는 과속과 사고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대책으로 구간단속카메라 대신 '사고 주범 불법주정차량 정비'를 요구한 시민이 67%(761명·중복투표)나 됐다.

이와 함께 '지점 과속카메라 대체'(38%·429명), '구간 단속 카메라 이용 시간과 요일 제한'(20.9%·236명), '구간 단속 구간 변경(축소)'(12.8%·145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시속 60km/h인 구간단속 카메라 제한속도를 높고는 66.4%(750명)가 80km/h 이상, 17.4%(197명)는 70km/h, 12.4%(140명) 60km/h, 3.7%(42명) 50km/h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시화나래휴게소 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는 실효성이 없다', '오토바이의 과속 단속이 시급하다' 등이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58.8%(664명)는 평일(월~금), 41.2%(465명)는 주말에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를 방문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91%(1천17명)는 올해 4월 시화방조제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시흥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는 시화방조제 구간에서 최근 10년 동안 과속으로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시흥시 8건, 안산시 2건)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도 진입 방향(시흥시)과 진출 방향(안산단원시)에 각각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흥경찰서는 올해 4월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안산단원경찰서 설치 구간은 대부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설치가 보류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사고와 체증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서울시, 도로 위 흥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탈바꿈



화물차 판스프링은 바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밑에 붙이는 철판이다. 그러나 원래의 용도와 달리 화물차에 짐을 싣는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화물차인 이 판스프링이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다른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회수한 불법 판스프링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안전 울타리로 만드는 내용이다. 도로 위 흥기였던 불법 판스프링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 울타리로 탈바꿈 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자사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렌즈'(전국 50개소)를 통해 판스프링 제거 신청을 받아 안전 울타리로 업사이클링한다. 화물차 300대까지 선착순으로 무상지원과 주유상품권(1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차 상용 고객센터 또는 현대트럭&버스 카카오프러스 친구 채널 1:1채팅을 통해 신청 가능한 '블루렌즈'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화물차 차종 및 제조사와 관계없이 10월 31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의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어린이 보호구역 장소를 선정한다. 오는 9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판스프링을 회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목표다.

나아가 불법 판스프링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장치로

현대차가 안전울타리로 업사이클링...시는 장소 선정해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관리 인식을 확산시키고 화물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해소해 쌍방향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20.10)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쓸 경우 차량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튜닝 승인 및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올해 3월까지 화물차 약 7,700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스프링을 안전한 고정형으로 개조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이해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던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전국에 계신 화물차주 및 화물 운수 종사자께서는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한 판스프링 제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유원하 현대차 부사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류익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금)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 '특별 점검반' 가동...주말 맞아 행정2부지사 현장 행보



최근 경기도가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주말을 맞아 1일 광주 남한산 계곡과 용인 고기리 계곡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제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자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의 일환이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하천지킴이들과 함께 계곡 곳곳을 둘러보며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불법영업행위 단속,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현황 등을 점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취사 방지, 마스크 착용과 현재 방역수준에 맞는 집합금지 이행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청정계곡도 민원원사업은 그간 물리적 행정력 동원이나 총출 없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결단과 양보로 이룬 모범사례"라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힘쓰자"고 밝혔다.

도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존 3개반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주말 11개반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 280여명이 동참한다.

동시에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운영, 하천 불법행위 적발 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 출동해 철거 등 신속히 대응하는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 계곡 대상 특별단속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행정대집행, 업무해대 관련자 처벌, 위반 업소 최고 수위 강력 처분, 대도민 홍보 활동,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영주시, 여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위해 한달간 단속강화

경북 영주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역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8월 한 달간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로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식 단속카

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는 현장지도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고 분리배출 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 배포, 아파트 방송문안 송부, 환경미화원 현장 계도,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깨끗한 영주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이상호 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관련 불편사항 등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기현기자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주정차민원 다수발생구간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강화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간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서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리슈빌아파트 → 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 →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 강서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 → 한살림 → 보미파란채 아파트 → 오네뜨 아파트 → 레디유타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구 신화예식장) → 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 → 박달재명가 앞 → 통통담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 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흥광초등학교 후문 → 흥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동 파리바게트, 장락동 주성마트 → 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장락주공아파

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 ↔ 장수왕족발, 중앙·내토시장 앞 도로 ↔ 남천약국 앞 교차로, 올마트 앞 삼거리 ↔ 내토초등학교 후문,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 ↔ 사랑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하여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확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통합사례관리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위기가정에 큰 도움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해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

광명시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위기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광명4동 한부모가정이 광명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광명시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대상으로 정해 신속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의 노모는 당뇨,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월 자녀와 함께 집에 거주 중으로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자녀 또한 간병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집안 살림을 방치하여 집안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자녀는 노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집안에 가득 찬 쓰레기 더미로 119 구급대원들이 집안에 들어



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자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무한돌봄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청소 및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7월 28일 ~ 29일 이

틀 동안 집안을 청소하고 1톤 가량 생활 쓰레기를 정리했다.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은 김OO 씨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라

전송희/기자

는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무한돌봄센터는 병원 입원 및 자녀의 자활 참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 상황은 해소되더라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과정이 필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무한돌봄센터, 광명·학온네트워크팀이 꾸준히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3개의 네트워크팀(광명·학온네트워크팀, 철산네트워크팀, 하안·소하네트워크팀)과 13개의 복지팀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 공직자들,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단체헌혈 취소 등으로 혈액공급난을 겪고 있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 및 생명나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잇따른 단체헌혈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포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한대의 시장과 군포시 공직자, 사회복무요원,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시민들이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은 헌혈버

스를 수시로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한편, 헌혈대상자에 대한 체질 전 여행력 확인, 체온 측정, 손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한대의 시장은 "코로나19를 이겨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포시 공무원들의 헌혈 동참이 혈액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매년 헌혈 운동에 동참해왔으며, 앞으로도 헌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 차원에서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혈액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종균/기자

수원시, 수원 역전시장 주변 이면도로 '골목길 깔끔하게 정비한다'

수원시가 역전시장 주변의 낙후된 이면도로와 골목길을 깔끔하게 정비한다.

수원시는 8월부터 '역전시장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역전시장 주변 이면도로·골목길 정비'와 '매산시장 반야케이드 2단계 구간 공사'로 이뤄진다. 9월 완공 예정이고,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역전시장 주변 이면도로·골목길 정비공사는 이면도로와 미로처럼 얽혀있는 상가 사이의 노후화된 골목길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아스콘을 덧씌우고, 노면 파손 부분을 정비해 보도·차도를 개선한다. 노후 우수전도 교체한다. 정비한 노면에는 스텐실 처리를 해 골목길 이미지를 한결 밝게 만든다.

매산시장 반야케이드 2단계 공사

는 역전시장 맞은편에 있는 매산시장에 점포 천장 일부를 덮는 '반야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다. 반야케이드는 길이 127m, 폭 2.75m이다. 1단계 공사(길이 130m)는 지난 4월 1일 완공했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매산시장 모든 구간에 반야케이드가 설치된다.

수원시는 여러 차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설명회를 연 후 2단계 추가공사를 확정했다.

2018년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원역 동쪽 팔달구 매산로 1가 105번지 일원 19만 7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 7일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염태영 시장은 "역전시장·매산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골목길을 정비하고, 매산시장 반야케이드 2단계 구간 공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역전시장 주변 노후화된 골목길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우리가족행복' 참가자 모집

우리 가족의 행복함이 뜻깊게 기억될 수 있는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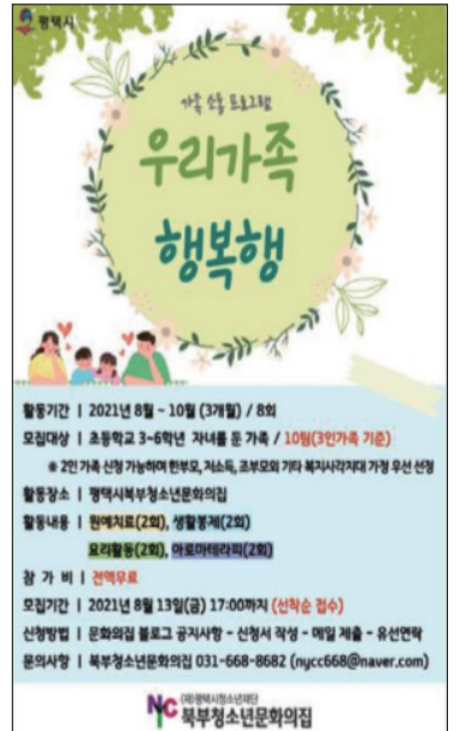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고 세대 간 가족 소통을 위해 기획한 '우리가족행복'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가족행복' 프로그램은 8월 28일 ~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기 활동이 진행되며, 내용으로는 ▲월에 치료 ▲생활 분제 ▲아로마 테라피 ▲요리 활동 등 각 2회기씩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활동으로 진행되고,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10팀의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오현정 관장은 "코로나19로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 모두 힘든 시기에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과 가



족이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으로 언제나 행복함이 가득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안산시 문화체육 시장, "안산시 대표한 자랑스러운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안산시장은 2일 "안산시를 대표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 안산시를 빛낸 영웅"이라며 선수들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안산시청 소속 선수들은 유도에 김원진(남자 60kg급), 윤현지(여자 78kg급) 선수와 펜싱에 최수연(여자 사브르 개인·단체), 서지연(여자 사브르 단체) 등 모두 4명이다.

최수연·서지연 선수는 함께 단체전에 출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올림픽이 첫 올림픽인 최수연 선수는 개인전에도 멋진 활약을 펼치며 16강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대한민국 유도 대표 김원진·윤현지 선수는

모두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했으나, 아쉽게도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다.

문화체육 시장은 "대한민국과 안산시를 빛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안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활약한 모습이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 폐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도쿄패럴림픽에는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이인국 선수(남자 수영 자유형 200m·배영 100m·접영 100m), 장성욱(보치아 개인전), 정성준(보치아 개인전·단체전) 선수가 각각 출전한다.

최정부/기자

파주시-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삼국시대 유적 육계토성 중장기 학술조사 상호간 협력하기로

파주시는 지난 7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파주 육계토성 중장기 학술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파주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 평지토성으로, 서울의 풍납토성과 함께 초기 백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러나 그간 육계토성 발굴조사는 1996년 긴급조사, 2005년과 2019년 시굴조사 등 단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철(卍)자형 주거지, 고구려토기, 백제토기 등이 확인됐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파주 육계토성 중장기 학술조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주된 내용은 육계토성 조사연구와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지원 협력이다.

파주시는 육계토성의 중장기적인 학술조사를 추진해 육계토성의 성격 및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밝힐 계획이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육계토성 잔존 성벽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육계토성의 실제 규명 및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파주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계토성의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해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이배재제빵소 김두희 대표' 광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격려물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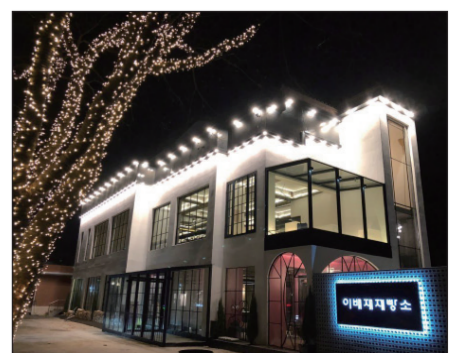
이배재제빵소 김두희 대표가 광주시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선별검사 등으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3개소 근무자들에게 8·9월 2개월간 매주 1회 음료와 빵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김 대표는 "폭염이 지속되는 와중에 시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대응에 장기간 고군분투하는 직원과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격려물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공식적인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순수 격려물품만 전달했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수원역로데오상권 활성화할 아이디어를 응모해주세요



수원역 로데오 콘테스트
대국민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능력자를 모여라!

총 상금 2,270만 원!

상권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유튜브 영상 공모!

시장 캐릭터 공모!

공모주제	대상	신청기간	수령액
시장 캐릭터	수원역 로데오상권에 위치한 4개 시장(역삼시장, 수원역로데오상권, 수원역로데오상권, 수원역로데오상권)	2021. 07. 26(월) ~ 08. 20(금) 18:00	최대 2,270만 원
유튜브 영상	수원역 로데오상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2021. 07. 26(월) ~ 08. 20(금) 18:00	최대 2,270만 원
상권활성화 아이디어	수원역 로데오상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2021. 07. 26(월) ~ 08. 20(금) 18:00	최대 2,27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수원역 로데오 상권'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2021년 수원역 로데오 콘테스트'가 열린다.

수원시가 주관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최하는 '수원역 로데오 콘테스트'는 수원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수원역 로데오 상권을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만들 콘텐츠·아이디어를 찾는 대국민 공모전이다.

공모는 '유튜브 영상', '시장 캐릭터',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영상'은 수원역 로데오 상권을 주제(배경)로 하는 모든 장르의 유튜브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10분 이내 분량 영상을 본인 계정 유튜브에 업로드 한 후 URL(인터넷 주소)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 캐릭터'는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데오마거릿상점가 등 수원역 로데오상

권 4개 시장·상점가의 특색를 반영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4개 캐릭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는 수원역 로데오상권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제안서를 출품하면 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문별로 대상 등 수상자를 선정하며 총상금은 2270만 원이다. 수원역 로데오상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역 로데오 콘테스트가 수원역세권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안양시, 2050 탄소중립 목표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한다

안양시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분야는 안양지역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기본방향 도출이 핵심을 이룬다. 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이를 위한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천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이 마련된다.

탄소중립 시민교육과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도 용역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산불, 홍수, 산사태 등이 인류 대재앙으로 불리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역

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여름과 겨울철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등 국내외적 기후변화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용역착수 보고회를 주재,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완성되는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는 최 시장을 포함해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안



양대 교수, 에너지경제와 온실가스 분야, 환경운동연합 등 23명이 참석,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7개 분야 21개

실천행동 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환경부 주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선정으로 조성하는 석수동 구 분뇨처리장의 기후에코그린센터를 내년 착공해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마인드 함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원종균기자

안산 상록구, 코로나 시대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안산시 상록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배달서비스 등 언택트 생활이 늘면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를 위해 상록구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화 실천 사례를 수집·공유하며 깨끗한 상록구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우수 사례로는 작년 9월부터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이동형 재활용 분리수거 거치대가 대표적이다.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대부분인 특성을 가진 이동지역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면서 자원재활용률이 급격히 늘었다.

10개소를 지난해 9월 설치하고 첫 달, 665.5kg의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된 뒤 한 달 뒤에는 1천610kg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지급량도 9월 32매에서, 10월 110매, 11월에는 192매로 크게 늘었다.

상록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내 골목길 100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프레임'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차

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무 곳에 버려지던 쓰레기가 프레임 중심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지게 된 것이다.

또 사동에서는 쓰레기 불법 삼습 투기지역에 미니화단을 조성, 지역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운동도하고 쓰레기도 줍는 에코 플로깅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청소정책을 개발·소개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깨끗한 도시를 가꾸가는 상록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202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확정



고양시가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4개 대회(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구성된다. 기존 개최 방식은 4개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여는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이었으나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이 도입된다.

시는 일반인 부문 2개 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개최지 선정은 시군 PT발표, 경기

도 실사단 현장점검(고양종합운동장, 성저파크골프장, 장항야구장)을 거쳐 진행됐다. 실사단 평가에서 고양시는 전국규모 개최의 풍부한 경험 및 인프라로 준비사항에 있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4개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전면 취소되었으나, 2023년 다시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대회 개최지로 재선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한 개최로 고양시의 역량을 펼쳐보이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대구 수성구 들안길 프롬나드,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

봉화군,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

대구 수성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행사는 국토 및 도시공간의 경관디자인을 향상한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3년째 개최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이다.

수성구는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해온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걷고 싶은 들안길 프롬나드'를 공모전에 출품했다.

들안길 프롬나드는 평가에서 주민·상인·구청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들안길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배경으로 민족의 한이 어린 곳인 동시에 수변 공간인 수성못과 고급 식당가로 유명한 곳이다.

1980년대 도시의 교통체증, 주차난 등을 피해 식당들이 하나둘 모여 형성된 들안길 먹거리 타운은 90년 대 전국 최대 규모와 다양한 메뉴로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구의 맛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으로 예전의 명성과는 멀어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들안



길 상인연합회, 인근 주민, 수성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들안길 프롬나드(산책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구성했으며,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규모는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길이 620m, 면적 54만㎡이며, 사업비는 총 65억원(국비 31억, 시비 15억, 구비 19억)이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먼저 생활안전 CCTV·하수 악취방지시설·LED 보안등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의 보급지리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 완료하였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 총 28면을 조성하고,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로 도로지장물을 지하화했다. 또한 보행로·자전거도로·피 녹지구 구분·설치해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지역주민, 예술가들의 아트마켓, 버스킹 등이 펼쳐지는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물을 지원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수성구의 핵심 사업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들안길 프롬나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더 의미 있고, 들안길과 그 주변이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차량 흐름, 보행자 사고위험 등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이가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담보상태에 빠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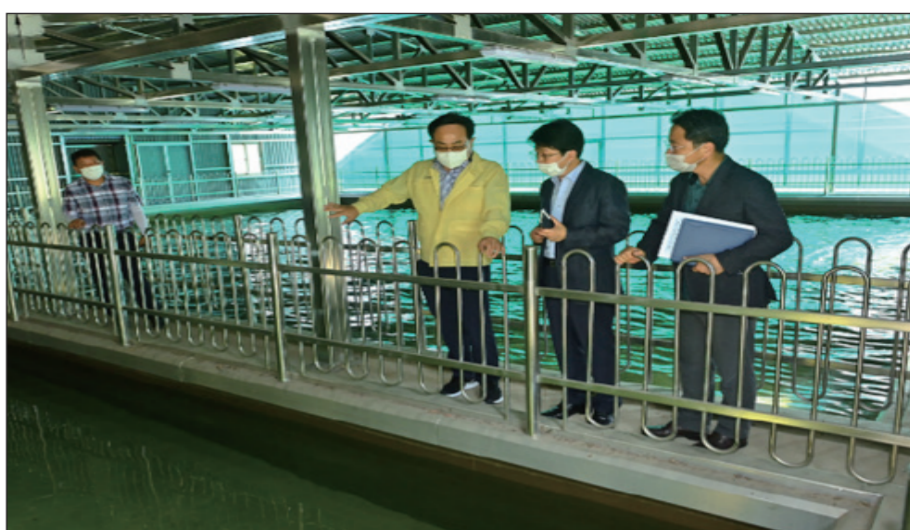
2018년 7월 취임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에 호응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과 설문조사, 타운홀 미팅, 수미장조 포럼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도로 중앙이 아닌 인도를 확장하는 리뉴얼로 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2월 전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제 들안길 프롬나드로 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수성구는 수성못 브랜드 파워를 들안길 너머까지 확장하기 위한 '생각을 담은 공간(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을 담은 공간'은 들안길 일대의 개발이 어려운 노후주택이나 원룸을 리모델링해 공공 예술작가촌을 만들고 민간 문화예술시설 유입을 지원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수성구의 핵심 사업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들안길 프롬나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더 의미 있고, 들안길과 그 주변이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환경부 수도시설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등급



엄태항 봉화군수는 짧은 장마가 지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7월 30일 봉화·물야정수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관리단 등을 방문해 수돗물 정수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2배인 봉화군은 현재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등 6개소의 정수장에서 1일 약 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69%로서 군단위에서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봉화군이 농촌 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것은 엄태항 봉화군수가 두 번째 군수직을 수행하던 1998년도에 봉화군 상수도 보급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둔 덕분이다.

봉화군은 양백지간의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이고 있으며, 남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에 위치해 이들 계곡에서 천혜의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수자원을 가졌을지라도 가정에서 편리하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 걱정이 없이 안전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시설현대화에 매진하였기에 가능했다.

봉화군에는 내성천 700리의 발원지인 물야면 오전리 오전댐에 물야정수장(4,000㎡/일), 봉화정수장(3,000㎡/일)과 낙동강의 또다른 시발지인 운곡천 춘양면 석현리에 춘양정수장(2,000㎡/일)을 소천면과 선계곡에 소천정수장, 낙동강 상류 석포면에 석포정수장과 재산면의 동면과 남면저수지 하류에 재산정수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10개 읍면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9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3년에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관리단을 개설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관리단에서는 20년간 177억원을 들여 기존 수돗물 누수의 원인인 상수도 노후관로를 보수 교체하여 정부의 친환경, 탄소저감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왔으며, 그 결과 2014년도 53%에 불과하던 유수율이 지난해에는 80.7%로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남궁영기기자

경상북도 인니 전역에 대구-경북 홍보 주인공 'K-GO·기 간다'



김기현기자

경주시,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D-10...최종점검 돌입



1일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전국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D-10일을 맞았다.

경주시 등은 '코로나19로 부터 가장 안전한 대회'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제2의 손해를 꿈꾸며 이번 화랑대기를 확실하게 준비해온 어린 학생들의 꿈을 꺾지 않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화랑대기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전국 200여개 학교 500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던 방식 대신, 팀별 6경기를 치러야 하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운영도 4개 부분(△U-12 △U-11 △U-10 △U-8)에서 3개 부분(△U-12 △U-11 △U-10)으로 변경됐다. 또 성적에 따라 수상하던 단체상도 폐지하고 그룹별 개인 시상 방식으로 바꿨다.

또 대회가 치러질 경기장 정비도 모두 마쳤다. 경기장은 크게 5권역으로 △시민운동장 1개소 △알천구장 5개소 △축구공원 6개소 △화랑마을 1개소 △서천둔치 1개소 등 총 14개

경기장 15개소 시설 점검·숙소 예약관리 등...대회운영 최종 점검

소다. 특히 이번 화랑대기 슬로건이 '코로나 19로 부터 가장 안전한 대회'로 정해진 만큼, 학부모들의 경기장 출입이 철저히 통제됨은 물론 참가팀 선수와 코칭스텝 전원은 PCR 검사를 받게끔 대회 규정도 손질됐다.

또 무관중 경기가 치러짐에 따라 대회 기간 중 모든 관중석은 폐쇄된다.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는 경기 운영과 교통대책, 숙소점검, 응급의료 등 분야별 지원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함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회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화랑대기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춰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축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단순히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를 넘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포항시는 8월 13일까지 '2021 시민정책단' 모임을 연장한다. 당초 모집 기간은 7월 30일까지였으나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민정책단은 포항시민 3~5명이 팀을 꾸려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모임이며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청년, 여성, 소상공인, 문화예술, 교통, 인구, 미래산업 등 시정의 모든 영역이 해당된다.

시민정책단의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고 10월 1차 예산, 12월 최종발표회로 활동이 마무리된다. 시는 시민정책단 활동 기간 중 아이디어 연구에 필요한 실무부서 자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시민정책단에 대해서는 금상(100만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 은상(70만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 동상(50만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의 상장 및 부상이 제공되며, 賞은 최종발표회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김기현기자

대구 중구, '지방자치 72년'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로 삶이 나아졌다는 질문에 중구 주민 만족도가 대구에서 제일 높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구 중구 주민의 47.3%가 지방자치로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8개 구·군 중 제일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학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등 7개 단체가 지방자치 72년,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아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 지방자치의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 대구시장과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0여개 항목으로 꾸며졌다.

결과를 보면 대구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질문에 27.5%만 '그렇다'고 답해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8개 구·군 중 중구는 주민의 47.3%가 '삶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와 대구시 전체 27.5%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에 인해서 체감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

고, 앞으로도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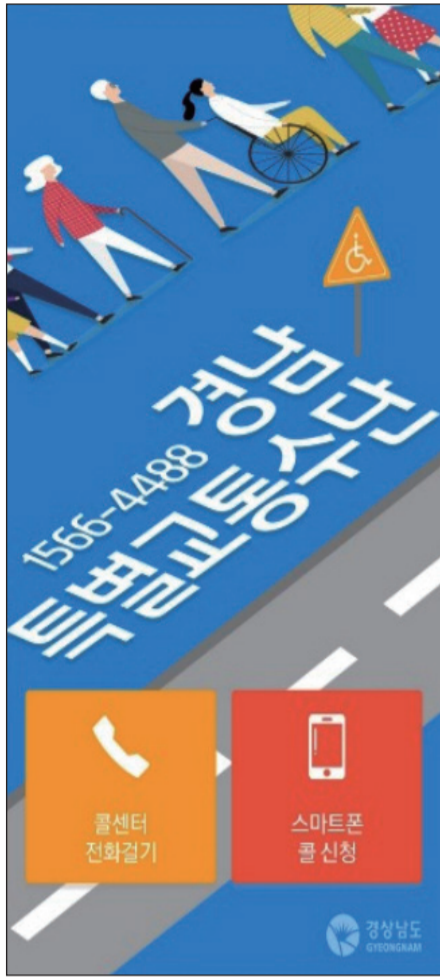
남궁영기기자



경남도민체감! 도민공감! 적극행정으로 일궈낸 성과!

울산강북강남청 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홍보 영상제작

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3명 선발



번 선발과정에서는 ▲최우수 1건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 ▲우수 2건 (도시계획과 김중규 주무관,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으로 총 3건이 선정되었다.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사례로 최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되었다. 김 주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 이동 수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김 주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배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불만에 주목하였다. 이에 지난해 6월 바우처 택시 도입 추진 t/f팀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및 택시조합 등과 9건의 핵심안건(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동승 인원, 운영 지역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스템(운행요금 자동정산 시스템, 배차시스템) 및 스마트폰용 앱을 도입, 올 하반기 김해 시 시범운영 거친 뒤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전면 시행 시 보험장애인 49,400여 명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입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김중규 주무관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유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되었다. 해당 사업은 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구도심 내 문화시설,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반값공급에 활용하여 지역상생에 앞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시개발이익 공유 사업은 도심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동시 주목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실무 t/f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사업 지구(김해시 풍유동)와 청년·신혼주택 공급 대상지(삼방공원 일원)를 확정하는 등 민·관·학 협업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올 2월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 향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상의 불합리한 개선에도 노력하여 본 사업 적용 대상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10% 이내)하는 조례 일부개정도 이뤄졌다. 또한 '도시개발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전국 최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경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은 '국지도와

고속국도 간의 통합 건설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관리청이 달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접 도로 간의 공사를 통합해 예산절감 및 국도의 효율적 이용을 이뤄낸 것이다.

오 주무관은 국지도(대동-매리) 구간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 구간 간 교통수요가 중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공공부분의 칸막이 행정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도로 공사비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우량농지 등의 편입 최소화 사업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노선 개발로 유통성이 큰 교통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국지도(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의 밀착 구간 통합 건설 시 중복투자 방지로 당초 예상 보상비(730억 원)보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 편입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올해로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이하는 경남도는 매년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게시판,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전파하고 있다. 또한 선발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시상금,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의 우대조치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와 과학적 보상 제공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광용기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S.O.S 학교업무지원 보장 보형'영상을 제작해 시교육청 유튜브에 공개했다.

올해 설립 2년차를 맞은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해 학교다운 학교 만들기(학교업무를 다룬시켜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기간제 교원 채용 등 교무분야 6개,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등 행정 분야 11개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현장 긴급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등 6개 업무를 추가하여 총 1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학기 준비 학교 지원 업무,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 시설법정용역 계약,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생존수영 교육지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각종 인력풀 운영,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방과후강사 선정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학교시설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청은 다양한 운영 사업과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와 교직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기존 홍보영상과 차별화된 콘셉트로 보험광고 형식의 영상을 자체 기획하고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관내 학교 교사와 주무관이 진행자로 출연하여 학교지원센터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교직원 4인을 인터뷰하여 학교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았다.

지난 6월에는 분영상 배포 전 티저 영상 형식으로 짧은 영상을 제작해 시교육청 유튜브에 공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작된 영상들은 학교관계자 관련 각종 행사 및 연수 시 시청자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였고, 교직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금정구, 비대면 명소 탐방 '모바일 스탬프 투어' 떠나요

의령군, 50년 묵은 행정구역 미조정지구 경계변경 적극 나서

창원시 석동정수장, 실감나는 콘텐츠로 정수장 체험한다

부산 금정구는 종교·생태·문화에 초점을 맞춘 3가지 코스의 '2021 금정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3가지 코스는 각각 9개 명소로 이뤄져 있어 모두 완주하면 금정구의 주요 관광지 27곳을 다 돌아볼 수 있다.

'종교·역사 힐링 투어 코스'는 불교·카톨릭·이슬람 3대 종교를 돌아볼 수 있는 범어사, 흥법사, 오륜대 한국승교자박물관, 한국이슬람사당 성원이 주요 방문지다. 여기에 옛 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걸었던 '황산도 금정 장원길'과 금정산성 성문이 포함됐다.

'생태힐링투어 코스'는 회동호를 돌아볼 수 있는 상현마을 광장, 생태탐방로(대숲길), 땅피산을 비롯해 두구동 연꽃소나무지,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까지 금정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지점을 걷는 코스로 구성됐다.

'핫플·문화공간투어 코스'는 부산대 젊음의 거리, 북대골(부산대 북문 맞접 거리)과 금정북곡, 금정온천 작은도서관, 오산문화관, 김사아트필드 미술관 등 금정구의 젊음을 느끼고 문화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들로 채워졌다. 참여 이벤트로는 코스별 완주를



인증하고 금정구 SNS 후기를 남긴 참가자 중 매월 50명과 3개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 중 최종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하고 '부산 금정구'를 선택한 뒤 명소 방문 후 모바일 스탬프 인증을 하면 된다. SNS 후기는 카카오톡에서 금정구청 채널을 추가한 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소식'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해 금정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종교·생태·문화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둘러보고 SNS에서 후기도 공유하며 금정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전국 최초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 핵심 "드론측량시스템" 도입

의령군은 지난 50년간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1960년~1990년대 경지정리 및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지형 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구거, 하천, 골목길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경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는 1960~1990년대 활발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제로 하나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존치하고 있어 지적도에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한 혼란과 재산권상실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업행정 방식을 채택해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의령읍 서동리와 가례면 가례리 경계 28필, 의령읍 무전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42필, 가례면 봉두리와 철곡면 신포리 경계 49필, 의령읍 무전리와 의령읍 정암리 농경문화테마파크 경계 61필, 용덕면 소상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7필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의령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템"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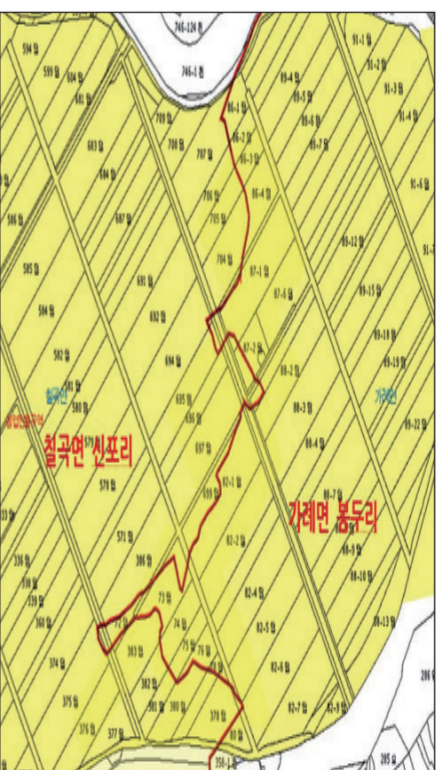
경지정리사업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지형의 변동으로 지적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하게

최선이라는 견해이다. 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드론측량시스템"은 GPS위성측량장비로 기준점측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편집한 영상자료에 지적도와 중첩하여 실제현황과 지적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면을 부여하게 되면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던 토지의 경계가 정확하게 조정되어 군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협업행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행정 혁신을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전국정수장 최초로 석동정수장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8월에 개관할 것이라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스마트 도시로의 시정변화에 따라 견학 운영의 효율성과 몰입도를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실감콘텐츠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체험형 견학프로그램은 체험자가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와 웹캠을 통해 사진 촬영 후 영상 면에 전송하면 벽면 터치로 정수처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인 샌드클래프트로 지형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촉각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사랑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수장 견학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도 제작 중이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원시 수돗물 '청아수' 생산과정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한 정수처리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울산 북부소방서, 시민영웅에 감사패 전달

박향민 씨 등 3명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 구해

울산 북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8월 2일 오전 9시 소방서 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6월 27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영웅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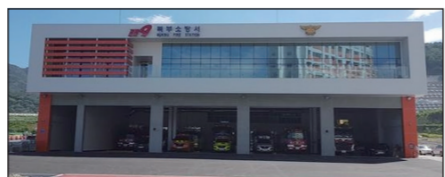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박향민(남, 29), 김은혜(여, 23), 이원희(남, 23)씨 등 3명은 지난 6월 27일 오후 5시 21

분경 북구 대안동 신홍사 인근 도로에서 5m 높이 계곡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9로 신고했다. 이어 신속하게 계곡아래 사고현장으로 이동한 후 침수가 우려되는 차량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시민영웅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돼서 쑥스럽다"며 "누구라도 사고현장을 목격했다면 우리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래 북부소방서장은 "침수가 우려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구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영웅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완도군, 전복 마케팅 총력전 펼쳐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전복 소비 촉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소비 문화뿐 아니라 고수온과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전복 폐사 우려 등으로 전복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은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행사 참여 단체는 (사)완도군전복생산자협회, (사)한국전복수출협회, (사)남도전복연합회, (사)한국전복수출협회이다.

활 전복 1kg당 15~16미는 3만 원, 2kg는 5만 8천 원이며, 택배비는 무료이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수와 산소를 주입해 포장·판매되며, 전화 주문은 (사)한국전복수출협회(061-555-4224, 061-552-0913)로 하면 된다.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엔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3개월 간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한 '전복' 광고를 실시하여 추석 명절 이후까지 전복이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한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 프로

그램을 적극 유치해 전복과 광어,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면보다는 온라인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대형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우체국)과 연계해 온라인 판촉전을 연말까지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와 함께 하는 추석 명절 판촉전과 심심한 완도 전복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준비하고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완도산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특히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학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에 게재된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엔택트 소비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전복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용기자

여수시 '긴급이동 멈춤'... 전시민 동참속 "확진자 감소세 뚜렷"

일주일간 전주 대비 확진자 71.8% 감소, 3단계 유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여수시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한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8월 1일 오전 10까지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 78명이었던데 비해 22명으로 56명이 줄면서 71.8%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발생한 22명의 확진자 중 13명이 자가격리 중 발생자이며 해외입국자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확진자 접촉 5명, 기타 유증상자 2명이다.

이동멈춤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분석한 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13.2% 감소했다. 시내 주요 주차장 이용율은 3%, 주요



관광지인 오동도, 향일암 입장객도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일주일간 불

편을 감내하고 이동멈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서 "2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이동멈춤이 해제됨을 알려 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으로 26일 연속 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방침에 따른 3단계는 8일까지 유지한다"면서, "타 지역 방문 자제와 불가피한 모임 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있는 곳을 이용하기 바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비수도권 3단계 시행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8일까지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랜드 일원에서 18시부터 06시까지 읍주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광양시, 289억 원 규모 투자협약(MOU) 체결



광양시는 지난 29일 5개 기업과

28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협약식은 서면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7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금 일반산업단지에는 ㈜선파워, 신포니아테크(주), 광양앵글(주) 3공장이 들어선다.

태양광 열차제 제조 전문기업인 ㈜선파워는 44억 원을 투자해 부지 4,950㎡를 매입하고, 내년 5월까지 공장 신설과 설비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포니아테크(주)는 23억 원을 투자

해 3,306㎡ 부지에 자체 개발한 제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디지털 인버터 용접기 제조공장을 세워 국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

광양에 1공장, 2공장이 위치한 광양앵글(주)은 전통적인 조립식 앵글, 볼트와 너트가 필요 없이 조립이 가능한 무볼트 앵글에 이어 앵글의 경량화 성공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랙 제조공장을 세운다. 광양앵글(주) 3공장은 1,669㎡ 부지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케이시틸(주)은 2,900㎡에 22억 원을 들여 화학·정유 및 제철소에 납품할 구

조물 생산공장을 짓는다. 최근 철 구조물 수요 증가로 물동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당3지구 24,135㎡ 부지에 180억 원을 투자한 강관 절단 공장은 인근 포스코에서 생산한 냉연강관을 가공해 자동차, 전자, 건설 등 각 산업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월 30일 기준 16개 기업에 1조 117억 원, 833명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으며, 올해 목표인 30개 기업, 1조 5천억 원의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기석기자

구례군-대책위, 1,818명 수해주민 눈물 닦아준다!

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 발족해 피해신청 접수 지원



구례군이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문도 놓치지 않겠다며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3일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만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다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며 피해신청준 및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같은 군과 대책위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주민의 위급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장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수해피해 신청 접수결과 구례읍이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

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데도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해대책위 김봉용, 김창승, 최성현 공동대표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안내와 서류확인 지원에 나섰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규명과 주민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중한 주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소홀함 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끝까지 주민의 뜻을 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에는 군민들께서 섬진강 범람으로 큰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식 같은 가족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가 한 톨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차 손해사정사 용역결과 4,890건, 1,126원의 피해신청을 마쳤으며, 이번에 피해주민의 배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최상홍기자

남원시 도심 속 아이들 모내기 체험!

남원시가 오는 12월까지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해마다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수도권 서울 성북 초등학교 외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남농영농조합이 사업을 추진, 연세어린이집 외 19개소는 남원원협 협동조합에서 학교 내 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도심 학교 내 공터에 고무화분(100-200개)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1일 농부가 돼 고사리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모내기를 체험하는 도심 속 작은 농촌 풍경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남원시에서는 각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학생들이 비의 생육 과정을 관찰하고 관리하며, 가을철에는 벼 베기, 탈곡, 도정 등 추수행사를 열어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 원예산업과장은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통해 도시 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먹거리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됨은 물론 지역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김영록 지사, 올림픽 '금' 김정환·구본길에게 축전

올림픽 양궁 첫 3관왕 안산 측에도... "여자배구·골프 등 경기 응원"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쿄올림픽에서 '금빛 찰찌'로 올림픽 2연패를 이끈 에폴리안영광CC 소속 김정환·구본길과, 양궁 혼성 단체전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 개인전까지 3관왕을 맹종한 안산 측에 각각 축전을 보냈다.

김정환·구본길 등으로 구성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7월 28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26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일궈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아, 이번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김정환은 또 대회 첫날인 24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2012년 런던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3회 연속 이자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네 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김영록 지사는 김정환·구본길에게 "제32회 2020도쿄올림픽 펜싱 종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는 축하메시지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또 신에 공사 안산은 7월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6-5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 영예를 안았다.

안산의 아버지 안경우 씨는 강진읍 남포 출신(강진군 4회 졸업)으로 광주에서 터를 잡았고, 안산은 광주에서 출생했다.

김 지사는 양궁 3관왕 안산을 훌륭하게 키워 안 씨에게도 "올림픽 3관왕 딸로 키워 호남의 자부심과 강인



한 정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에게 "한일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여자배구의 염혜선(목포 출신),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골프의 김세연(영암 출신) 등 지역 출신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외출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기자

장성군, 전남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

장성군이 지역 및 전남권 여성 기업인들과 만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30일, 장성군은 군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임원, 장성군 여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영 전남지회장, 송현임 ㈜탐원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여 남짓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경영 시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 육성 및 발전 방법 모색 등 진솔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김영 지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뜻깊다"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유두석 장성군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장성군은 지역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면서 "장성군과 기업이 앞으로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 구매 총액인 959억원 가운데 114억원을 여성 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는

등 여성 기업의 경영 안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오훈권기자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생태도시로 발돋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가던 여름밤, 전북 고창군의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모처럼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격을 전했다.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속에 사라지는 갯벌을 끝까지 지켜내며 마침내 세계자연유산에 올린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 봤다.

바지락캐고 나지잡으며 삶 영위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톱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발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첫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한 이래 종묘, 수원화성 등 15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연유산은 제주도 외에 한국의갯벌이 두 번째다.

각 유산의 진정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의 경우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한다는 등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고창갯벌'을 온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시켰다.

모래·펄·혼합갯벌 한 곳에,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쉼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비결로 고창군은 갯벌을 지켜내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노력을 꼽았다. 고창군은 '고창갯벌'의 우수성과 생태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식물원 조성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생태를 보존하고자 했

던 군민들의 순수한 노력들이 갯벌처럼 겹겹이 쌓여서 '고창갯벌'이라는 고창의 정체성이자 최고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특히 2019년 10월 고창을 찾았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실사단은 아동생태지질체합 학습(지오드립) 등을 포함한 갯벌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며 이번 자연유산 등재 전망을 밝혔다.

고창군 폐염전부지에 노을과 함께 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

고창군은 고창갯벌과 최인접 지역인 심원면 염전부지 216만2925㎡(65만평) 규모를 매입해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식생이 복원된 광활한 폐염전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해당부지의 활용과 고창갯벌과의 연계 추진 등 고창군을 넘어 서해안권의 중요한 생태관광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

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갯벌보존과 현장교육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니인터뷰

유기상 고창군수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로, 갯벌의 가치 보존 알릴 것"

유기상 고창군수는 "갯벌을 생활터전으로 지켜온 고창군민과 문화재청, 전라북도, 서천군, 신안군, 보성군, 순천시와 울력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다"고 활짝 웃었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유산인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고창판소리, 여기에 행정구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지정으로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전세계가 고창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어깨도 무겁다.

이에 유 군수는 "고창은 이미 20년의 세월동안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훌륭히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세계유산을 통한 관광이익이 직접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면서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로 고창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마한역사유적'과 '상금리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태기자

무주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제20대 대선공약으로!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을 김성주 지역사무소에서 만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을 제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무주군 관계자들이 함께해 열광을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비용이 아니라 태권도와 태권도종주국, 태권도 성지 전북(무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전북도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긍정적 결과를 얻었던 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무주태권도시 조성'으로 국제 성지화 완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무주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업을 핵심으로 한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제안한 점 등을 들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이 대선공약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여론 형성 기반을 다지며 내실 있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2.4)과 국기원(3.9), 대한태권도협회(3.31)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서 사관학교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U-프로젝트는 말굽자식의 모양과 원리를 적용한 사업 개념으로 'U'의 의미는 'Universe(전 세계, 전 인류)'로 자식의 'N극'은 North Korea(북한), 'S극'는 South Korea(남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하나 되고(ONE WORLD) 남과 북이 하나(ONE KOREA)돼 남북한 평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정우기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첫 치안현장 점검 나서



전북경찰청 이형세 청장이 30일 익산지역 치안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이청장 취임 후 첫 치안현장 방문으로 전북경찰청 지휘부와 함께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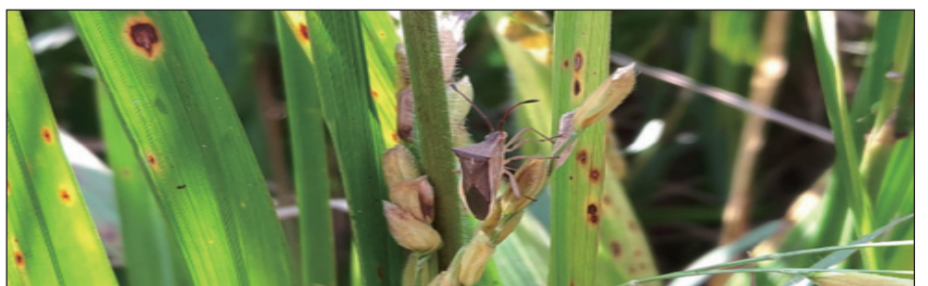
이형세 청장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현황과 근무실태 파악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실태점검과 무더위 속 고생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은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수사과 경제2팀이 2021년 2분기 전북경찰청 경제 수사 분야 1위에 올라 전북경찰청에서 시행한 '최고 수사팀'에 선정돼 이청장이 직접 인증패를 전달하는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청장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무안군, 벼 병해충 예찰·방제 지도 '총력'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단양군 민선 7기 관광 단양 한 단계 '점프'

2019년 단일연도 천만 관광객 달성... 2021년 수상 관광 원년 선포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군이 민선 7기 3년간 관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관광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연간 1067만 명 관광객 방문과 같은 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충청권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등 양과 질 모두에서 성과를 냈다. 수상 관광 단양 시대를 기치로 내

걸고 추진한 계류장 조성사업도 대부분 운영을 시작하며 벌써부터 관광객 유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단양호(수중보~도담삼봉) 12.8km 구간을 테마별로 5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한 이 사업은 4개 구역을 준공하고 각종 대형 및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 단양의 만천하 테마파크는 만천하 슬라이드와 모노레일을 새롭게 설치하고 편의 휴게시설을 대폭 확충해 소화형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개장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65만 7814명이 방문해 127억 5763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코로나 시대에 변함없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단양을 천동리 다리안관광지 내에 19억 원을 투자해 체험형 그물 시설인 팡팡 그라운드를 만들어 인기를 끌며 관광 단양에 재미를 더했다.

대강면 울산리에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손잡고 사계절 관광휴양 시설을 개발하기로 해 지금까지 공공투

자 일변도의 지역개발에서 민간투자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중앙선 복선화로 생긴 폐철도에는 ㈜소노인터내설과 함께 레일코스터와 풍경열차, 기차테마파크, 문화물등을 짓기로 해 또 하나의 민자유회 패거리를 이뤘다.

기적의 섬으로 알려진 시루섬에 현수교와 탐방로를 만드는 시루섬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성공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년간 모두 24곳에 경관 조명 연출을 통한 오색 찬란한 야간 경관을 조성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에 야경 명품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다누리센터에 개장한 빛을 활용한 실내 관광시설인 별별 스토리센터도 특색있는 관광지로 인기를 끌며 단양빛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단성면 북하리에 추진되고 있는 옛 단양 생태공원과 단양역 일원에 조성된 강 문화공원을 대한민국 녹

색 섬표라는 도시브랜드에 맞는 관광에 편안한 휴식을 더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온달과 평강의 사랑을 간직한 온달관광지 온달전시관도 2018년부터 3년 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선보여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개통한 달맞이길도 단양강의 아름다운 절경과 야간 경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수변 관광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각종 공모사업으로 매화공원 정비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2020년 열린 관광지 등을 추진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은 관광 단양이 결실을 맺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면서 "앞으로 수상 관광 개막과 더불어 체험형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광 단양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춘천시,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



춘천시가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을 통한 전 산업 지능화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의 주관기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숲속배달부비비비', '구름빵'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얼굴 랜드마크 데이터 구축'이란 주제로 2021년 12월까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 랜드마크 데이터를 7가지 감정으로 분류하여 약 40만건을 구축한다.

사업은 민관협력(춘천시-강원정보문화진흥원-민간기업) 체계를 통해 추진되며,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는 추후 AI 허브에 개방되어, 애니메

이션 특화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 및 애니메이션 관련 종사자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개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 박물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정제 및 가공·검증 등에 8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하여 취업준비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춘천시 전락산업과 현근수 과장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애니메이션 및 IT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일자리 쇼크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보령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의 새로운 지평 열었다

온라인 프로그램 다양화로 SNS 조회수 203만회 기록... 오프라인 축제장도 3000여 명 다녀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상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된 '제24회 보령머드축제'에 200여만명이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머드축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22보령해안머드박람회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보령시는 지난 23일 개막한 제24회 온오프(ON&OFF) 머드축제에 8월 1일까지 SNS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203만회를 기록하고 오프라인 축제장에 3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의 개념을 넘어 테이스트 오브 보령, 드 라이빙 보령 아일랜드 등 보령의 신선한 농축산물 소개 및 경매와 함께 섬의 다양한 풍경을 공유하는 콘텐츠

를 통해 랜선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축제기간 중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대세계, 태국송크란 물축제 등과 함께 세계축제협회가 선정한 아시아 3대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시에 따르면 축제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유튜브 머드TV채널에 60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누적 조회수 27만3800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누적 조회수 161만5500건을 기록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 '헤이저니', '아영광' 채널에 집중 소개된 보령머드축제 콘텐츠도 누적 조회수 14만 3300회를 기록해 많은 구독자들에게 보령을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집콕 머드라이브 인 더 월드'에서는 전세계 각국의 참여자를 포함해 500명의 화상 참여자와 실시간 최대 접속자 5000여 명이 함께



공연을 보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전송하며 생생한 현장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전해수욕장 일원에 설치된 오프라인 체험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보령머드축제는 온오프라인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직·간접적인 체험객 200여만명을 기록하며 전세계적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올해 경험을 계기로 온라인 콘텐츠를 보령머드축제의 시그니처 콘텐츠로 개발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1500년 한산모시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



서천군은 1500년 전통의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보전·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해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을 국가가 지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삼국시대부터 1500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농업으로 모시농업은 번식(파종), 생육, 수확, 껍질 벗기기, 말리기 등 모시농업 전 과정에 걸쳐 근·현대적 기계에 의한 작업이 없는 100% 수작업 농법에 의한 자연친화적 농업이다.

한산모시는 우리나라 전통직물의 세계적 우수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서천지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귀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이러한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다음 세대에 계

승하기 위해 무엇보다 모시의 근원이 되는 모시 농업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서천군은 한산태모시영농조합(사)한산모시조합을 중심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고 지난 3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발표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박재 서천군수는 "한산모시는 서천군의 대표적인 특산자원으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으로 세계유산 한산모시의 문화적 가치와 농업유산적 가치를 연결해 한산모시의 유산적 가치를 강화하고 한산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는 2013년부터 전국 15개가 지정받았으며 이 중 충청남도는 금산인삼농업 1개소로 서천군은 충청남도에서 2번째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도전한다.

고정화기자

예산군 황선봉 군수, 코로나19 최전방의 영웅들 격려



황선봉 예산군수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예산군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7월 30일 황선봉 군수는 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에 근무 중인 직원들과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 대응팀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황 군수는 보건소 옆에 신축한 감염병전진진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을 분리한 선별진료실, 호흡기전담클리닉실, 감염병대응종합상황실 등 시설을 살피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더 꼼꼼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강원도,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서 '전국 최우수'

내년도 국비 인센티브 22억원 확보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아 '22년도 국비 인센티브 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대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지역사업평가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실행·성과관리·확산의 전주기적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년 지역산업육성사업에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고용 창출 256명(목표대비 113%)과 사업화 매출 501억원(목표대비 119%)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

라믹부품제조 전문기업인 ㈜아이테크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42%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셀파인은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한 음료 원액 제조 핵심기술을 확보하였고, ㈜보템은 환자모니터링 감시장치 수출 확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뎀은 강원대와 진행한 발효연구 기술협업을 통한 사업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우수 성과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양원도 첨단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강원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혁신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강원도만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금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을 찾습니다

금천구, 제26회 금천구민상 후보자 접수



금천구가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26회 금천구민상' 후보자를 오는 9월 3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밝혔다.

'금천구민상'은 △지역사회봉사 △미용양육 △교육 △문화 △체육 5개 부문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추천대상은 각 부문별 구민화합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2021년 8월 2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주민, 단체(기업체 포함) 또는 단체 소속원이다.

후보자는 금천구민 20명 이상 공동으로 추천하거나 각 부문 관계기관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자료 등 신청서류를 후보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부문별 구청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와 부문별 후보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금천구공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중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민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귀감이 되는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며, 199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25회까지 총 111명의 구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면서 주민과 동행 해 온 많은 영웅이 있다"며,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 숨은 주역들을 찾아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영광군, 2021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대상 수상



영광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심사위원장 및 각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적극적인 성과창출로 지역발전을 이끈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민간부문 지

방정부 평가제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그린카 10만대 생산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6.2MW, 5개소), △초대형 풍력시스템 실증단지 구축, △구도심 전선 지중화, △국·지방도를 포함한 도로망 SOC 확대 등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역 산업경제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성 군수는 "현장중심의 군정 운영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높이 도약하는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봉화 솔향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아동 50명에게 여름 잠옷 기증



국제로타리 3630지구(경북) 제12지역(봉화) 봉화 솔향로타리클럽(회장 : 이순영)이 지난 7월 30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여름 잠옷을 기증했다. 한반식/기자

기증된 물품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 50명에게 전달됐다. 봉화 솔향로타리클럽은 '초아의 봉사이념' 아래 꾸준히 사랑의 물품기부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순영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담아 취약계층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잠옷을 전달하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이금성 군민행복과장은 "지역에 소외된 아동 하나하나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알뜰히 챙기는 봉화 솔향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대전이 키운 인공지능 인재, 대통령상·장관상 수상

전국 해커톤 대회 1·2등 짝꿍이, 대전 인공지능 교육기관서 배출

대전시가 지원한 인공지능 교육기관 수료생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해커톤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1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양성 해커톤 대회'를 열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훈련생들이 그간 쌓아온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을 발휘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실현을 돕는 서비스나 앱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해커톤 대회에 총 202명 48팀이 참가해 기획서 심사와 온라인 해커톤, 최종 본선 심사를 거쳐 총 7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1·2등에 해당하는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받은 두 팀 모두 대전시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교육기관 '아이펠 대전' 1기 수료생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심투데이티팀(팀장 김이삭)은 가상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불, 재난 등 인공지능 개발 시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간단히 얻을 수 있게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관상인 대상을 받은 청(聽)개구리팀(팀장 양창원)은 수어(手語) 영상과 한국어 음성을 서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농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장벽을 디지털 신기술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이펠 대전'은 대전시와 인공지능 전문교육기관인 '모두의연구소'가 함께 운영 중인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작년 12월 개소해 지난 6월 1기 수료생 46명을 배출했다.

교육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교육생이 단계별 과제를 스스로 선택해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시 최교신 스마트시티과장은 "대통령상 수상은 대전시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이 이른 결실"이라며, "인공지능 인재양성에서 나아가 취업까지 지역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연구소 김승일 대표는 "대전시와 고용노동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모두의연구소 교육 노하우, 교육생의 의지와 노력 그 어느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역기업과 적극 협업하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펠 대전'은 8월 16일까지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교육은 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펠 대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인천시 남동구, 심폐소생술로 생명구한 남동구 통계조사원 격려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 남동구 눈 현동 대로변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30대 여성을 구한 것을 길을 지나던 평범한 두 명의 남동구 주민이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다행히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 의식을 회복한 여성을 살릴 수 있었다.

이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 중 한명인 홍혜연(44.여)씨는 현재 남동구청에서 통계조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지난 30일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함께 남동구청에서 이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홍씨에게 "뉴스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우리 남동구와 남동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홍혜연씨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누구나 저처럼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소방사 체험 때 저도 같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했던 것이 이번 일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라며 답했다.

이날 격려자리는 통계조사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경청한 후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이들에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하트세이버'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최재은/기자

강진의 딸 '안산', 올림픽 3관왕 달성

강진에서 도쿄까지 군민의 함성은 뜨거웠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16강전 예선전의 경기가 열린 30일 오후 4시 강진군 제1실내체육관은 40여 명의 군민이 모여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응원하는 열기로 요동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점으로 적극적인 응원전은 하지 못했지만 대형스크린을 통해 안산 선수의 손끝에서 날아가는 화살 한발, 한발을 지켜보며 금메달을 기원했다.

안산은 광주여대 양궁팀의 간판으로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해 2관왕에 올랐는데, 도쿄올림픽 첫 날인 혼성전에 김제덕(17, 경북일고)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세를 몰아 여자 단체전까지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안산 선수의 아버지 안경우씨는 강진을 남포 출신(강진고 4회 졸업)으로 광주에서 터를 잡았고, 안산은

광주에서 출생했다.

안산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양궁을 시작해 광주체고 2학년부 터 3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돼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은 물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2020 프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한국 양궁을 빛낼 스타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강진 출신 아버지가 타향에서 고생 끝에 유명 양궁선수를 길러낸 것"이라며 "강진 출신이란게 자랑스럽다"고 대견스러워 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영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도쿄올림픽 양궁에 출전하는 안산 선수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며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 올림픽 전관왕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주)동영산업, 시흥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사랑의 후원금 전달

은평구 진관동, 무더위 속 단비 같은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주)동영산업은 7월 28일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주)동영산업은 생활폐기물 수거 전문업체로 임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흥시에 꾸준히 성금 및 물품 등을 후원하고 있다. 능곡동에만 올해 들어 3번째 기부다.

업체 관계자는 전달식에서 "무더운 여름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능곡동 주민을 위해 따뜻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신 동영산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용수 능곡동장은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동영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능곡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활용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은평구 진관동주민센터는 방문요양기관인 "(A)+젤로스 돌봄센터가 쌀 200kg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젤로스 돌봄센터는 매해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쌀 기부로 무더위에 시원한 단비처럼 기분 좋은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기부받은 쌀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인례 젤로스 돌봄센터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정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해 드리고 훈훈한 정을 나누겠다"며 "주변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우연 진관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기에 백미를 기탁하는 (A)+젤로스 돌봄센터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한국도자재단, 5일까지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참여 작가 모집

재단, 8월 5일까지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전시 참여 요강 모집

한국도자재단이 8월 5일까지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Fine Art Asia Hong Kong) 아트페어'에 참여할 도예작가(요장)를 공개 모집한다.

홍콩에서 개최되는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는 2006년부터 매년 10월 홍콩 가을 경매 시즌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10월 3일부터 8일까지 홍콩 최대 규모의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주 홍콩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에 참가해 약 36㎡(11평) 규모의 한국도자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한국 대표성을 지닌 현대작품과 생활형 아트상품을 포함한 소품류다. 최대 15명의 작가를 모집해 35점 내외의 작품을 전시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도자공예 및 디자인 작가, 한국도자재단 등록도

예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8월 5일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해 이메일(118@kocef.org)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작가에게는 ▲국내 작품 반입·반출을 제외한 작품운송 및 왕복 해외운송료 면제 ▲운송 및 전시 기간을 포함한 작품보험 무료 가입 ▲국내의 재단 온라인쇼핑몰 판매 마케팅 지원 ▲홍보 및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종료 후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주 홍콩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원 내 복합문화공간에서 후속 전시를 열어 더 많은 홍콩 시민에게 한국 도자공예를 홍보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아



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시장으로 알려진 홍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도자공예 문화와 예술을 홍콩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아시아 미술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8년 '홍콩페스티벌 코리아축제'에 참가해 한국 도예작가 28명을 모집, 작품 197점을 '한국 도자기 라이브 스타일전(Korean Ceramics for Styling Your Space)'으로 선보였다.

전순희/기자

세종시와 한글을 알아가는 시간

8.17부터 10.12까지 정책아카데미 '세종시·한글' 주제 열려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말과 글의 의미와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종시'와 '한글'의 달을 기념한 '한글'을 주제로 정책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영송)에서 운영 중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한다.

동시에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세종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세종e채널)로도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와 한글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 연계한 강의 3회를 포함한 총 8회로 구성·진행된다.

8월 세부 강의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흐름과 과제(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의미(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24일)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 전략(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1일)로 진행된다.

9월에는 ▲수축사회와 미래도시 세종(홍성국 국회의원, 7일) ▲도시의 삶에 나무를 심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14일)가 열려 세종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마무리된다.

9월 28일부터는 '한글'을 주제로 ▲한글사랑도시 세종-세종시의 보편주의 융합 정신과 한글(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강의가 열린다.

10월 5일은 한글날을 기념해 TV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으로 잘 알려진 이덕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세계 속의 한글' 특강이 이어지며, 12일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로 8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한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며, 대면(50명)과 비대면(무제한) 선착순 수강신청이 별도 진행된다.

비대면(유튜브 생방송)의 경우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나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학점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수강신청 후 6회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준희 시장은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세종시를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한글날을 앞두고 준비된 '한글' 주제 강의는 한글사랑도시 세종의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한글 진흥에 앞장서도록 북돋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인천시 제6회 문학산 음악회<여름, 시네마 재즈 온라인 콘서트> 개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예술인과 종사자와의 상생음악회로 추진

인천광역시시는 「제6회 문학산 음악회」 <여름, 시네마 재즈 콘서트>를 8월 7일 저녁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방송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학산을 1년에 단 한번 야간에 개방해 개최했던 문학산 음악회가 2020년부터 매일 야간까지 확대 개방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계절 음악회로 기획해 봄 음악회에 이어 인천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여름, 시네마 재즈 콘서트>는 한국재즈 1.5세대로 평가받는 실력파 최용민 재즈밴드의 연주와 천재 트럼페터 광다경의 다채로운 연주를 통해 한 여름 밤 무더위 날려줄 낭만적인 시네마 재즈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영화음악인 '오즈의 마법사'와 '니모를 찾아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태양은 가득히', '대부', '빠빠웅'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즈의 선율로 펼쳐진다.

다만, 코로나19 4단계에 따라 여름 음악회는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개된 문학산이 아니라 인



천 재즈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버텨라인"에서 공연실황을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버텨라인"은 100년이 넘는 개화기 근대건축물로 1983년 오픈해 김광민, 웅산, 윈터플레이 등 국내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무대에 선 곳으로 인천 재즈의 산실로 평가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문학산은 인천 역사의 진산으로 우리시 기념물 제1호인 문학산성이 위치한 산

으로, 작년 10월 인천 시민의 염원으로 야간까지 확대 개방돼 시민들이 언제나 찾는 친근한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해가 음악회는 시민들이 문학산 정상에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여름, 시네마 재즈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문화재단,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개최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은 시민이 직접 담아낸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보여주는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을 오는 8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민청과 시청역 지하보도 일대에서 개최한다.

2014년에 시작해 해마다 열리는 '시민청 도시사진전'은 지금까지 총 26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올해는 '당신의 일상에 안부를 물어요'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시대를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사진전은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시대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시민청 시민기획단의 의견에 따라 시민공동기획 사업으로 제작됐다. 이번 사진전에는 총 539명의 시민이 참여해 1,36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서 최종 31점을 선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으로는 ▲퇴근길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누군가의 통화(김현배 작)' ▲야외 공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더위를 대하는 '각자의 공간(공지수 작)' ▲복지관 문이 닫혀 집에 머무는 어르신들의 '권태로움(신사강 작)'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란지에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높아진 물가(안이슬 작)'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담았다.

오는 8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은 시민청과 시청역 4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개방전시로 진행된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8월 6일부터는 시민청 누리집 내 'VR시민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현유주/기자



인천시, 의미있는 집콕생활! '에코홈스쿨'

8월 9일부터 선착순, 비대면 환경사랑 체험키트 신청

인천광역시시는 코로나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체험 평생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사랑 체험이벤트는 '에코홈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행사는 8월 9일부터 인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체험내용은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보고 청정에너지인 태양에너지에 대해 알아본다. 체험 후 인증샷을 찍어보고 가족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2차 행사는 9월 27일부터 인천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행사에서는 '함께해요,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쓰레기를 줄이는 샴푸바 만들기 체험키트를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들은 인천시민 누구나(재)인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체험키트는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체험키트를 만든 후 인증샷은 이메일을 통

해 제출하면 된다. 박유진 시 평생교육담당관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인천시민 가족들의 일상에 재미와 배움을 주는 다양한 평생교육 행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이명애 작가, 원덕읍의 작은 어촌 마을 '갈남'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 출판



삼척시의 한 작은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이 출판됐다.

'플라스틱 섬', '내일은 맑습습니다,' 등 그림책으로 유명한 이명애 작가의 신작인 '휴가'는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갈남 마을을 주 배경으로 그림책의 주인공이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내용이다. 삼척시는 이번 출판 지원을 그동안의 홍보방법이었던 직접적인 홍보가 아니라 갈남 마을의 중심 경관인 월미도를 비롯한 마을 풍경을 그림책에 자연스럽게 녹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림책을 통한 비대면

이명애 작가의 신작 '휴가'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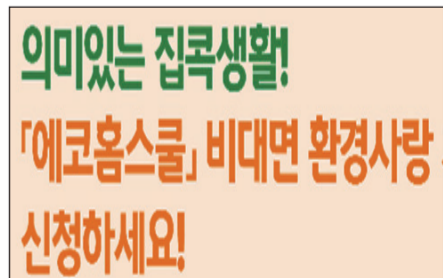
여행으로 갈남마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휴가'는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며, 시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그림책을 구입, 전국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 도서관 방문자들이 책을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남마을을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판한 책 외에 갈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 1권을 추가 제작 중에 있다."며 "그림책을 전국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 전국의 독자들에게 갈남 마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갈남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림책 제작 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지원센터 신축, 마을 대표 조형물 설치, 주차장, 공원 등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동원/작가



신청기간	대상	체험내용
1차 8.9(월) - 선착순	인천시민 500명	-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2차 9.27(화) - 선착순	인천시민 300명	- 함께해요, 제로웨이스트 - 쓰레기 줄이는 샴푸바 만들기

경남도, 소상공인 어려움 나누는 '상생임대료 운동' 확산

경남도 상생임대료 운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확산

경상남도는 '상생임대료 운동' 적극 장려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임대료 운동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경남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하여 건축물본 재산세 4억 28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 100만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하여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

대했으며,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정한 경우에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여 2,547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는 조치로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인하해 준다. 이 역시 올해 12월까지 연장되었다.

LH주택공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LH 임대료가 임대료를 25%까지 인하하여 총 80개 사업장에서 4천 200만 원을 감면받았다.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역시 12월까지 연장 실시된다.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이 소유 점포의 안전

점검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전기시설 점검을 해준다.

그 외에도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18건 6억 7천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연말까지 저금리대출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시군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사례를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상생나눔가게 인증을 통하여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상생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장하고, 남해군 산림조합에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생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상생임대료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

부동산서비스분야 우수인재·새싹기업

발굴...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오아시스비즈니스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 3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1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상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95개팀이 참가 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5.28~7.9) 참여팀(15팀)을 대상으로 2차 비대면 영상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오아시스비즈니스'팀의 'AI 상권분석 기반 상업시설 시장분석 RPA 시스템'은 상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매출을 도출하는 AI 및 RPA 시스템으로 상업시설의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대면 주거 구독서비스 플랫폼, 보험'으로 참가한 '리버블'팀이 수상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 및 소액 보증금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구독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부동산 시세추진 및 자산관리 서비스'로 참가한 '퍼시픽데이터랩'팀이 감성평가정보를 활용한 비도시·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추



정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개방형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부동산부터), 부동산 경·공매 입장 큐레이팅 서비스(당장), 비대면 실시간 집주경 영상기반의 중개상담 서비스(윈더무브)로 참가한 3개팀이, 특별상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 시스템 서비스(비엔써)가 수상하였다.

한편, 7개 수상팀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 마련된 창업공간을 개방하여 1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9월에 열리는 '제9회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 사업' 본격 개시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인 7브릿지.비치 통합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 본격화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부산에 있는 7개의 해안교량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7개 해안교량과 해수욕장을 행운의 의미를 담아 통합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는 7브릿지&비치가 부산관광 특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향후 브랜드 개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업계·유관기관 등 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과 연말연시 메가 이벤트 개최, 영상제작·각종·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상품화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약 실천 과제인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으로 올해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연계 이벤트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2024년까지 최대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충남도, "농업·농촌 정책아이디어 제안해주세요"

정책의 다양성, 현장성 담아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충남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도는 오는 5일까지 '만사형통 충남'을 통해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정책아이디어를 제안받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민과 농업·농촌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안 분야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촌환경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농촌공간 조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산과 유통 및 인력양성 등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화를 방지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제안 받는다.

김성균 도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량생산과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남의 미래 농정을 위한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농업의 생산성 향상방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주제로 3차례 전문

전국민 대상 "충청남도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정책아이디어 제안

2021. 7. 19. ~ 8. 5. (20일간)
대상_농업과 농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메이커스 또는 전자정부 충남)에 접속한다
- 정책아이디어 제안 배너를 클릭한다
- 로그인한다(간편로그인 이용)
-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정보동의 체크한다
- 아이디어 제안 작성
- 제안 누르면 끝

농업정책 아이디어 제안 고려사항

-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맞춘 핵심가치 반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지역발전 정책, 4차산업 정책 대응 등
 - 농업·농촌 인식 전환 및 기능의 다양화
 - 정부·민간 협력, 농촌공간 조화, 농촌 환경관리
- 미래농업에 대응 위한 지속가능성 반영
 - 중소농과 청년농의 교육, 일자리 창출, 청년·여성 등 후계인력 육성
 - 생산과 유통·소비 연결, 농산물 수출, 농정재정·거버넌스 대응
- 정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정책 가능한 사업
- 중앙정부에 제안 가능한 사업
- 기초 사업의 보완·강화 사업
- 도민의 차등성 있는 사업(특수사업)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만사형통 충남 http://10004.chungnam.go.kr

부 상
제약시 상용권 지급

문의처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TEL 041-635-4025

가 토론회를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지역 농업인단체, 농업협회소 및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10년을 이끌 충남 농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정화/기자

울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료 10%를 할인하고, 울산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범위가 오늘(8월 2일)부터 확대된다.

가입대상은 '제조업'에서 '전업종'으로, 지원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어음) 미회수로 손실을 입을 경우, 보험 운용사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영 안정망 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따르면, 보험 가입 중소기업의 부실 발생률이 미가입 업체에 비해 평균 57%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은 현재 186개사이며 최근 3년간 총 26억 원의 보험보상을 지급받은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했다"면서 "많은 지역 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전시, '2021년 제15회 매출의 탑 수상기업'모집

2일부터 방문 접수,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및 근로자

2021년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 모집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20년도 1백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모집기간 : 8. 2(월) ~ 8. 31(화)

시상식 개최
2021. 11. 11(목) 14:00, 호텔 ICC(예정)

접수처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042-380-3047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www.djbea.or.kr 확인하세요.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1년 제15회 매출의 탑 수상기업 및 유공근로자'선정을 위해 8월 2일부터 31일까지 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전년도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임원 포함)이다. 매출유공 기업은 본사 또는 주생산지가 대전 관내에 있어야 하며,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소재 공장의 매출액만 인정된다.

매출유공 근로자는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매출실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대표가 추천한 자여야 한다.

수상자는 10월에 심의 결정하고 시상식은 11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안

정자금 융자 시 3%의 이차차액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시 2%의 이차차액 지원 △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신청 시 가점부여 △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매출의 탑 시상식은 내수판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출 증진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매출의 탑은 2007년 이후 총 267개사가 선정되었다.

한울원전 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원전)는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7월30일(금) 오전 10시에 발전을 중지하고 약 69.7일간의 일정으로 제23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원전연료교체, 각종기기 정비 및 설비개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우수무당 가두심' 김새론 X 남다름, 20분 미드폼에 폭 빠져드는 이유! '찐 몰입' 유발 드라마 등장!



〈우수무당 가두심〉이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쫄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카카오톡 오리지널 〈우수무당 가두심〉(연출 박호진, 송제영 / 극본 주브라더스 / 기획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제작 메이스 엔터테인먼트)은 원치 않는 운명을 타고난 소녀 무당 '가두심'(김새론 분)과 원치 않게 영혼을

보게 된 엄친아 '나우수'(남다름 분)가 위기의 18세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함께 미스터리로 파헤쳐가는 고교 회마로 갔다. 지난 30일 공개된 1-2화에서는 무당의 삶을 거부하는 18세 소녀 두심이 전학 한 학교에서 전교 꼴찌가 연이어 목숨을 끊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맞닥뜨리는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소녀무당과 전교 1등 엄친아의 첫

만남부터 간질간질한 로맨스까지 더해져 쫄 틈 없는 스토리가 숨쉴 틈 없이 펼쳐져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선사했으며, 배우들의 신랄한 연기력이 더해져 몰입감을 더했다. 또한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괴롭히는 악령의 등장, 성적 지상주의에 갇힌 어른과 학생들의 모습을 비춰내며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잡았다는 호평을 얻었다.

이를 증명하듯 〈우수무당 가두심〉은 공개 5시간 만에 100만뷰, 약 3일 만에 300만 뷰를 기록했다. 〈우수무당 가두심〉이 단 1-2화 만에 시청자들을 '찐 몰입'하게 만든 이유를 짚어봤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녀무당과 전교 1등 엄친아! 1-2화만에 빨려드는 쫄 틈 있는 스토리!

두심은 귀신을 보고 소통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 할머니 묘심(윤석화 분), 엄마 효심(배혜선 분)같은 무당의 삶은 거부하는 18세 소녀다. 10년 전 악령에 썩인 학생 현수(유선호 분)를 구하려다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할머니 묘심이 세상을 떠난 이후, 묘심이 남긴 말 "열여덟을 무사히 지켜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을 마음에 새기며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길 기대한 것. 그러나 송영고로 전학한 첫날, 두심은 엄마 효심을 도와 날뛰는 영혼을 처리한 뒤 피 묻은 얼굴, 흐트러진 교복 차림으로 교실에 도착했다. 앞선 데 묘친격으로 하필 두심이 전학 한 당일 전교 꼴등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심과 괴롭힘까지 시작돼, 두심의 앞날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이 예고됐다.

한편 송영고의 전교 1등 엄친아인 우수는 만신창이로 전학 온 두심을 첫만남부터 훑어지게 바라보더니, 두심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교실에서 뛰쳐나가려 하자 두심을 와락 끌어안으며 "가지마 두심아"라는 한마디를 던져 보는 이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했다. 오묘한 첫만남부터 말랑말랑한 포옹까지, 김새론과 남다름은 찰떡 공합 케미로 설렘 가득 전개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게 했다.

1-2화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두심이 원하는 대로 18살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지, 우수와는 어떤 관계가 될지 궁금증을 유발했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쫄 틈 있는 스토리, 무당이라는 이색적인 소재, 김새론과 남다름의 찰떡 연기가 어우러져 완성된 드라마는 1-2화부터 시청자들의 찐 몰입을 불렀다.

신랄한 악령 연기의 향연에,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력 더해져 '민보드'란

악령이라는 초현실적 존재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도 시청자들을 극중 상황에 한껏 빠져들게 했다. 먼저 과거 영화 '아저씨' 등으로 제작진과 인연을 맺었으며 수많은 악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연기를 선보

여운 배우 김성오가 악령 역으로 특별 출연,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 섬뜩함과 사악함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또한 악령이 평범한 고등학생 현수의 몸을 지배하는 장면에서는 배우 유선호가 나약한 학생 현수와 대비되는 소름 끼치는 모습들을 리얼하게 연기하며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여기에 문성근, 윤석화, 배혜선 등 대배우들의 연기도 더해져 분위기를 단번에 압도했다. 명문 송영고등학교 교장 경필 역의 문성근은 학생들의 시험 결과에만 신경 쓰는 성적 지상주의 교사의 표본을 연기하며, 잠깐의 등장으로 극도의 공포를 발산해 앞으로 극의 서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3대 무당 가문의 1대 무당 묘심을 맡은 윤석화는 인자한 미소 속에 감춰둔 강력한 신기로 악령을 제압하며 두심의 걸크러쉬 면모와는 또다른 기품 있는 카리스마를 방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눈을 땔 수 없는 흡입력 있는 캐릭터를 완성했다. 묘심의 딸이자 두심의 어머니 효심 역할로 분한 배혜선 역시 세속적인 성격이면서도 귀여움과 사랑스러움까지 풍기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판타지-현실 사이 절묘한 밀당! 현실적이라 더 쓸쓸한 '공감 판타지!' 〈우수무당 가두심〉은 무당과 악령이 등장해 현실을 뛰어넘는 재미를 주는 판타지 장르이면서도, 성적 지상주의라는 극히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공감대를 자극한다.

악령의 첫 번째 타깃인 현수에게 엄마는 "공부도 못 하는 놈이 반항까지 해? 차라리 죽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악령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던 현수는 이내 악령에 지배당하고는, "나보고 맨날 죽으라며! 살 가지 않냐! 이번엔 엄마 말 들어라!"라는 말을 남겨, 오싹함을 주는 한편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또한 두심이 전학한 송영고는 "무능한 자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성적 지상주의 그 자체인 학교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전교 꼴찌 학생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질 상황에서 사망 사건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이를 개인사로 포장해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소름을 유발했다.

이처럼 〈우수무당 가두심〉은 공부 못하는 학생만 괴롭히는 악령의 등장을 통해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한 학교와 이를 강요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감까지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렀다. 판타지와 현실 사이 절묘한 밀고 당기기를 통해 단 1-2화 공개만으로 시청자들의 찐 몰입을 부른 〈우수무당 가두심〉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수무당 가두심〉은 매회 20분 내외, 총 12부로 구성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공개된다.

전순희/기자

'환승연애' 한달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천만 돌파

'과몰입 주의보' 발령

'환승연애'가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뷰를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환승연애'는 지난 6월 26일 1화가 유튜브 채널 티빙(TVING)에 공개된 후 약 한 달만인 7월 29일, 풀버전 포함 총 43개 클립에서 누적 조회수 1,052만 4,867회를 돌파했다.

이는 사이먼 도미닉, 이윤진, 김예원, 유라 등 패널들의 멘트 영상과 'X-라이브', '내마음나도모르디오' 클립 등을 제외한 수치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현재 6화까지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는 매회 다양한 에피소드로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선사, 시청자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순간 빠져들게 만드는 깊은 몰입감을 안겨주며 '과몰입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

황이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솔직한 느낌", "X가 누군가 추리하면서 보는 재미와 제작진이 기획한 설정들도 다 신박하고 새롭다", "보통 과몰입 중", "처음으로 재밌는 방송을 찾은 느낌", "기획, 설정, 연출, BGM 등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새로운 프로그램 같음" 등의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전 연인이었던 X의 정체 공개되며 '환승연애'는 '다시보기 필수'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X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출연자들의 표정, 행동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커뮤니티와 실시간 댓글 등도 '환승연애'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의 기운이 커질수록 비례하는 긴장감도 다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재미 요소다.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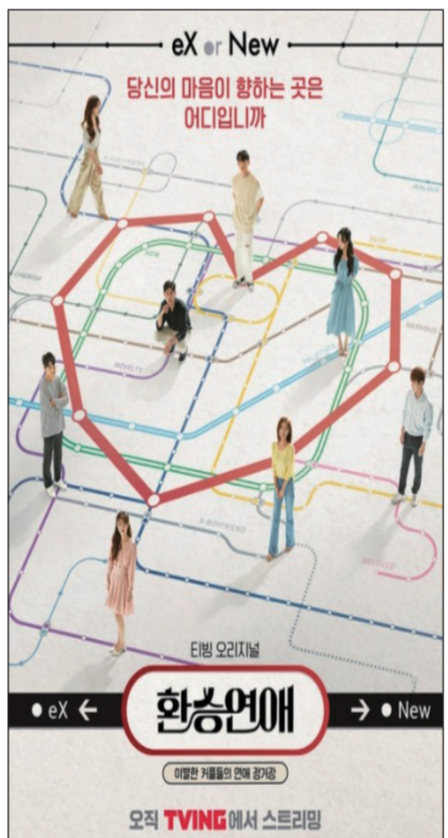
로운 만남을 응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X에 대한 복잡한 심리가 시청자들에게도 남다른 몰입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환승연애'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헤어질 남녀의 동거,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복잡한 감정과 새로운 설렘을 자극하고 있다. 동시에 시청자들의 잠자던 연애세포를 깨우며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윤식당', '삼시세끼'를 만든 제작진의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과연 '환승연애'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시청자들을 '과몰입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지 기대를 모은다.

연애 리얼리티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화제의 중심에 선 '환승연애'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공개된다.

현유주/기자



영화 '싱크홀'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 폐막작 선정!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에 이어 해외 영화제 뜨거운 러브콜

올여름 단 하나의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 8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싱크홀'은 사상초유의 재난 속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연을 맡은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팀워크가 선사할 확실한 대중성으로 여름 극장가 최고의 오락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제74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피아자 그란테 세션에 초청된 '싱크홀'은 이번 뉴욕아시아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며 해외 영화제의 잇단 호평과 러브콜을 받고 있어 개봉을 기다리는 국내 관객들의 기대를 더욱 높인다.

뉴욕아시아영화제는 상업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부터 아트하우스 작품까지 매년 다양한 아시아 영화

를 뉴욕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영화제다.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는 폐막작인 '싱크홀'과 함께 '모가디슈', '미드나이트', '자산여보', '세자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최선의 삶' 등 약 6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뉴욕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무엘 자미에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을 폐막작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이번 영화제를 '싱크홀'로 폐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흡입력 있고 흥미진진한 이 영화는 우리가 왜 영화관에 가는 것을 사랑하는지 상기시켜 주는 작품이다. 훌륭한 연기 앙상블과 액션 가득한 스토리를 지닌 '싱크홀'은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고 설명하며 영화에 대한 극찬을 전했다.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며 해외 영화제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은 8월 11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배우 이보영, 우아한 자태 빛나는 화보 비하인드 컷 공개!



이보영의 화보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3일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이 배우 이보영의 화보 촬영 현장 속 우아한 자태가 담긴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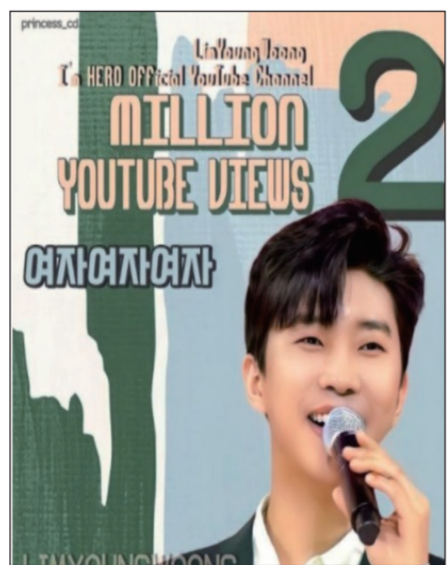
다채로운 무드가 돋보이는 사진 속 이보영은 고급스러운 비주얼과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누드톤의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의 변화로 세련된 매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터틀넥, 셔츠, 오버사이즈 자켓 등의 의상은 물론 매치한 주얼리까지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포즈들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화보 못지않은 B컷을 완성시킨 이보영은 현장에서든 완벽한 집중력과 표현력으로 독보적인 화보를 탄생시키며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보영의 화보는 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W Korea)' 8월호 화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광수/기자

임영웅 '여자 여자 여자', 유튜브 조회수 200만 돌파



트롯 가수 임영웅의 '여자 여자 여자' 무대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다.

를 부른 모습을 담았다. 이날 방송은 '사물 상사' 콘셉트로 진행됐다. 김우성, 민우혁, 강은탁, 구혜선, 박진주 갈소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임영웅은 시원한 가창력으로 주목 받았다.

현재 임영웅의 유튜브 공식 채널 '임영웅'은 약 1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총 누적 조회수는 9억 4000만 뷰를 넘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과 독립해서 운영되는 채널 '임영웅 쇼츠 (Shorts)'도 16만 4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한편 설은도는 직접 작사·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임영웅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3000만 뷰를 기록했다.

전순희/기자

